

# 한눈에 보는 서울



SEOUL  
at a  
Glance

2016

# Seoul at a Glance 2016

한 눈에  
보는 서울



---

## 목차

---

###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6	1. 보통 가구
8	서울의 보통가구는?
10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12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14	서울의 1인 가구는?
16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18	2. 보통 사람
20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22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24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26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28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3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걱정 생활비는?
31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33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35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37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 II. 서울의 사회생활

40	1. 일상생활 만족도
42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44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46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48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50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52	2. 일상생활 환경
54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56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58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60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62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64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65	서울의 NO <sub>2</sub>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66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

---

## 목차

---

### III. 서울의 웰빙

70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72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74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77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78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81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

### IV. 서울의 시민의식

84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6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88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90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92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94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96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98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현주소는?

---

### 서울서베이란?

102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103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104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105	서울서베이의 활용

---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Households and People  
in Seoul**



## 1 보통 가구

- \_\_\_ 서울의 보통가구는?
- \_\_\_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 \_\_\_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1인 가구는?
- \_\_\_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 2 보통 사람

- \_\_\_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 \_\_\_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_\_\_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 \_\_\_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 \_\_\_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 \_\_\_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_\_\_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_\_\_ 서울의 보통가구는?
- \_\_\_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 \_\_\_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1인 가구는?
- \_\_\_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 보통 가구

Households  
in Seoul



# 서울의 보통가구?



**200**만원

서남2생활권  
서남1생활권  
서북생활권



**600**만원

동남1생활권  
서남3생활권  
도심권

2015년 기준 서울의 보통가구주는 평균연령 48.9세의 남성으로 전문대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다. 평균가구의 모습에서 서울이 조금씩 나이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64명으로 평균가구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의 17%는 월평균 4~5백만원 사이, 15.9%는 3~4백만원의 평균가구소득 분포를 나타냈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서남권, 서북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서남2생활권 15.0%, 서남1생활권 11.8%, 서북생활권 10.3%로 나타났다.

보통 가구주

**48.9**세



男



전문대졸  
학력

평균 가구원수

**2.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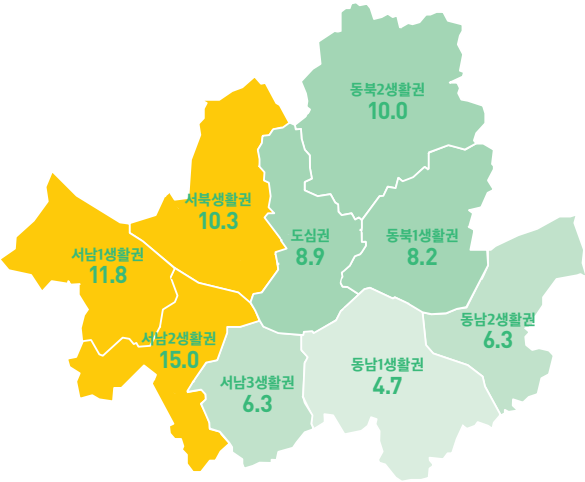
월평균 소득 대표값

**400-500**만원

200만원 이하 소득자 비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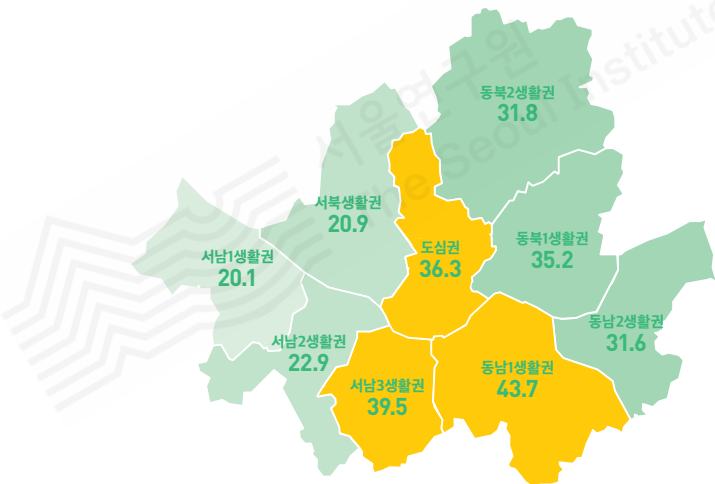
(단위: %)



6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생활권 구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송파구, 강동구

#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51.1%

강남구



42.4%

강동구



41.2%

마포구

2015년 서울 가구주의 35.7%는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포함하면 56.1%로 10가구 중 5-6가구가 대졸이상의 학력계층이다.

가구주 학력 수준간 지역적 편차는 크게 나타나는데,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의 고학력(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 가구주의 비중은 각각 51.1%, 42.4%, 41.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북구, 중구, 영등포구는 각각 26.4%, 27.7%, 29.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전문대 이상 가구주

56.1%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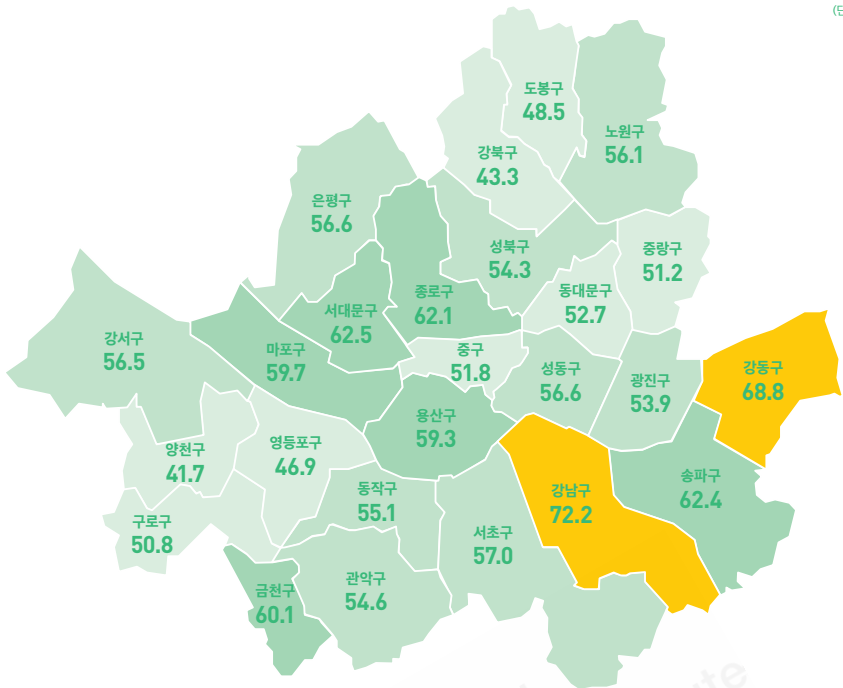
35.7%



전문대 이상 가구주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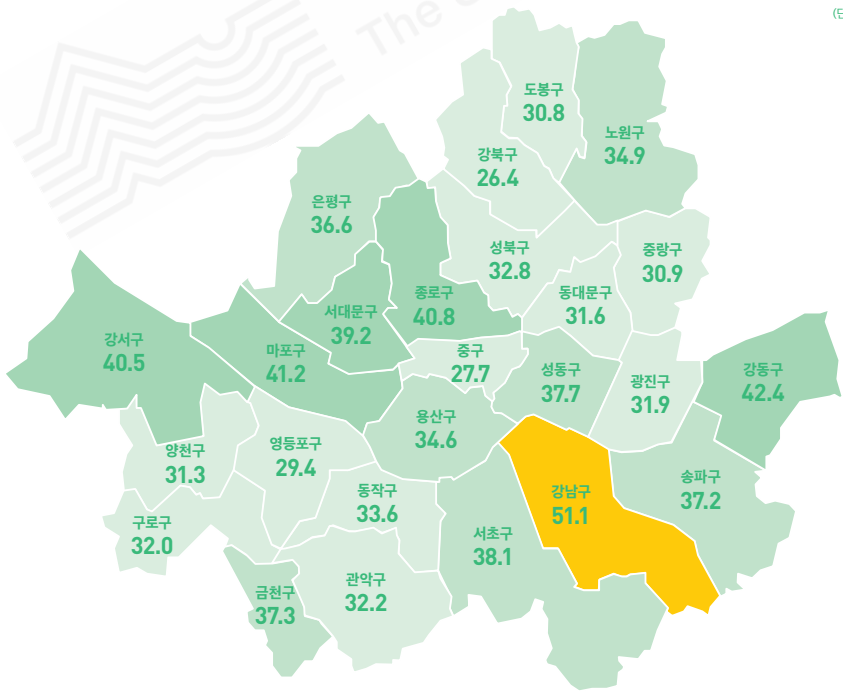
(단위: %)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38.1%

1970-2015년



1.001명

2015년

서울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2.63명에서 2015년 2.39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0.24명이 감소하였다. 서울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가구 증가, 결혼기피, 출산기피 현상이 원인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서울시에서 결혼한 남녀는 총 64,193쌍으로 1990년의 103,843쌍에 비해 무려 38.1%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26세에서 32.95세로 4.69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5.54세에서 30.80세로 5.26세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및 만혼(晩婚)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는 1993년 1.558명에서 2015년 1.001명으로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39명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서울 합계출산율

1.001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국 합계출산율

1.239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혼한 남녀

64,193쌍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초혼 연령



3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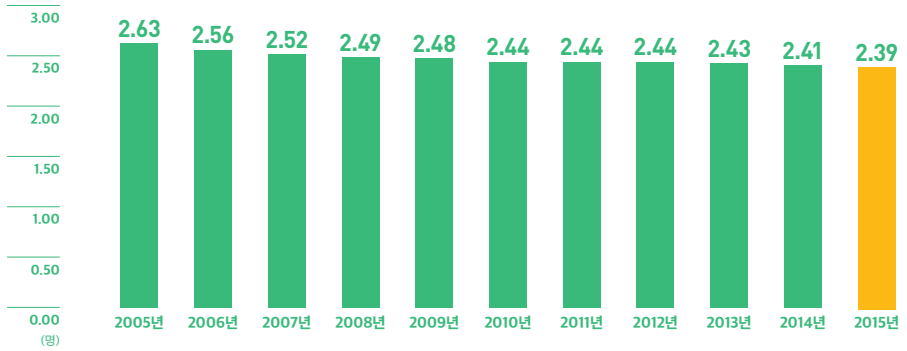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0.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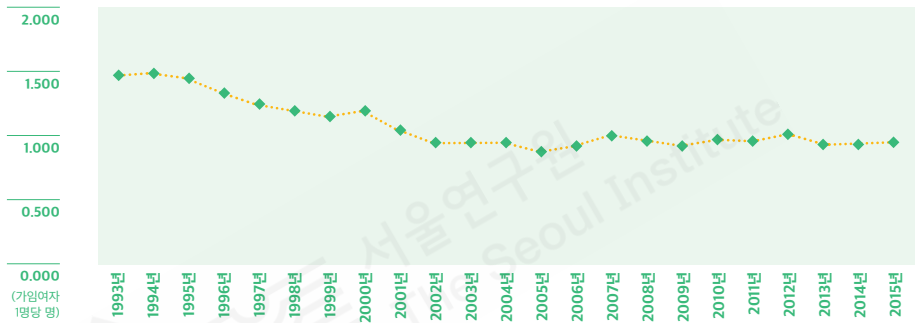
## 가구원수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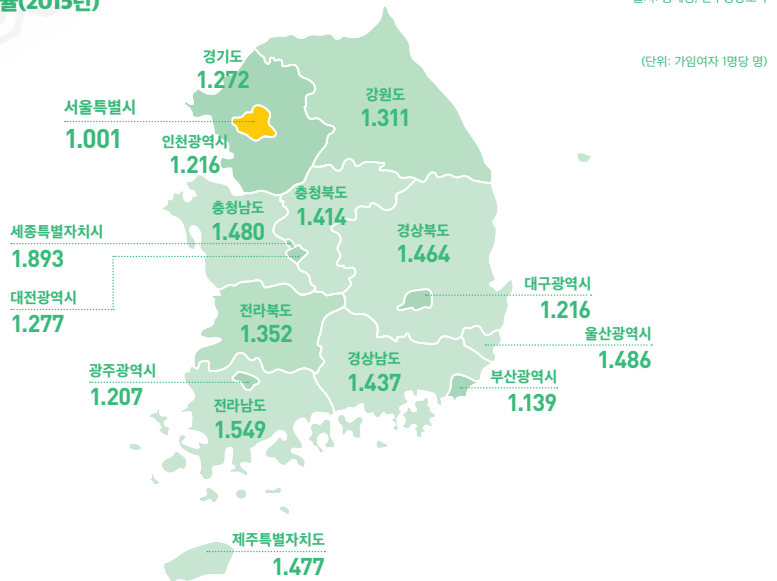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서울)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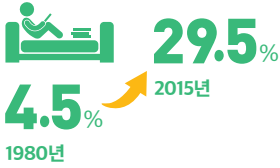


## 시도별 합계출산율(2015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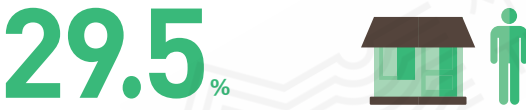
# 서울의 1인 가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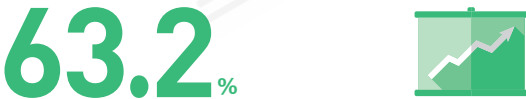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증가는 서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과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30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 전체 가구 대비 4.5%에 불과하던 서울의 1인 가구는 2015년 29.5%로, 3가구 중 1가구는 '나 홀로 족'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가구 역시 4.8%에서 27.2%로 서울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전체 가구의 63.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의 핵가족에서 더욱 가구 분화가 진행돼 '나 홀로 족' 또는 '부부 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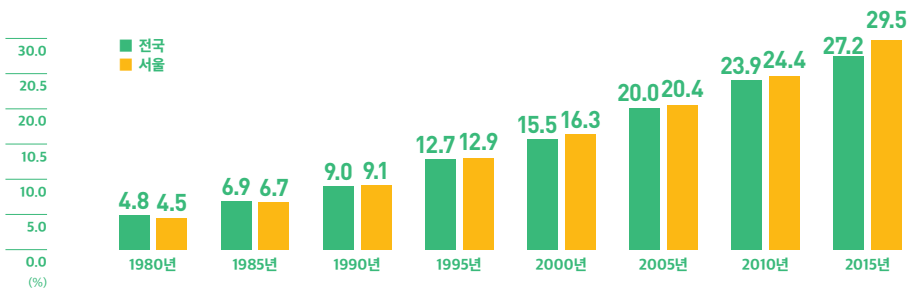


1-2인 가구 2035년 예상 비율



1인가구(서울,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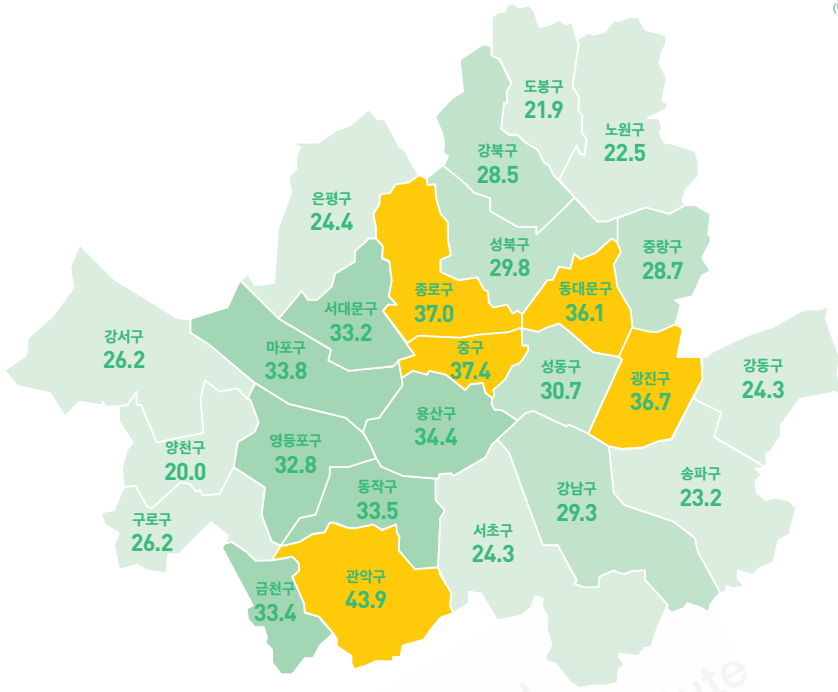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 구별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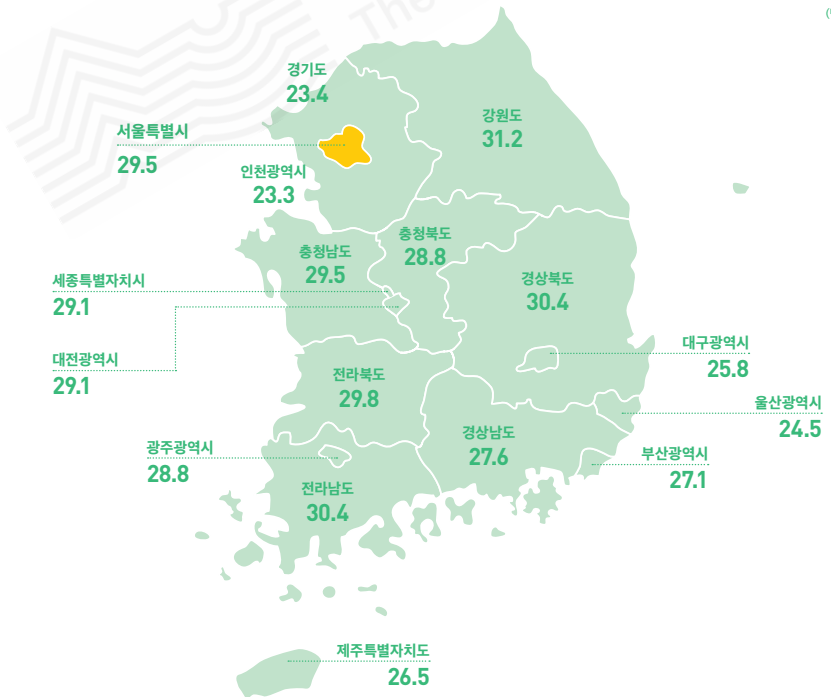
(단위: %)



## 1인 가구 비율(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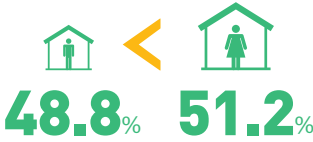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단위: %)





#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서울의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높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1.2%로 남성의 48.8%에 비해 2.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5.1%인 여성 1인 가구는 25개 자치구 중 특히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전체 여성 1인 가구의 43.7%가 집중되어 있다.

결혼 기피, 취업 등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비율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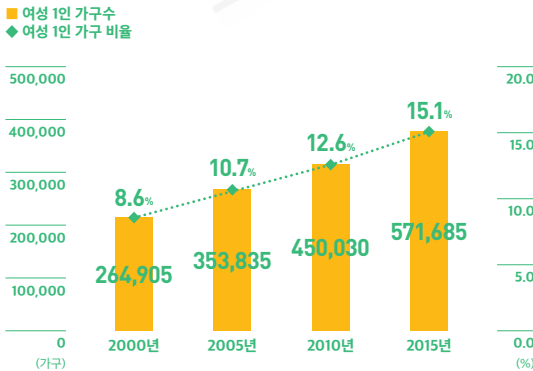


여성 1인 가구 중 20-30대 비율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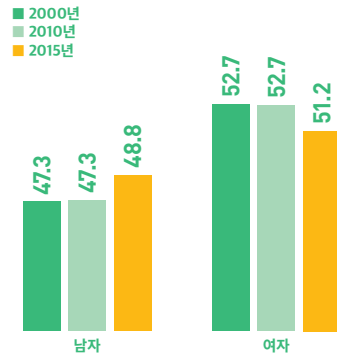
전체가구 중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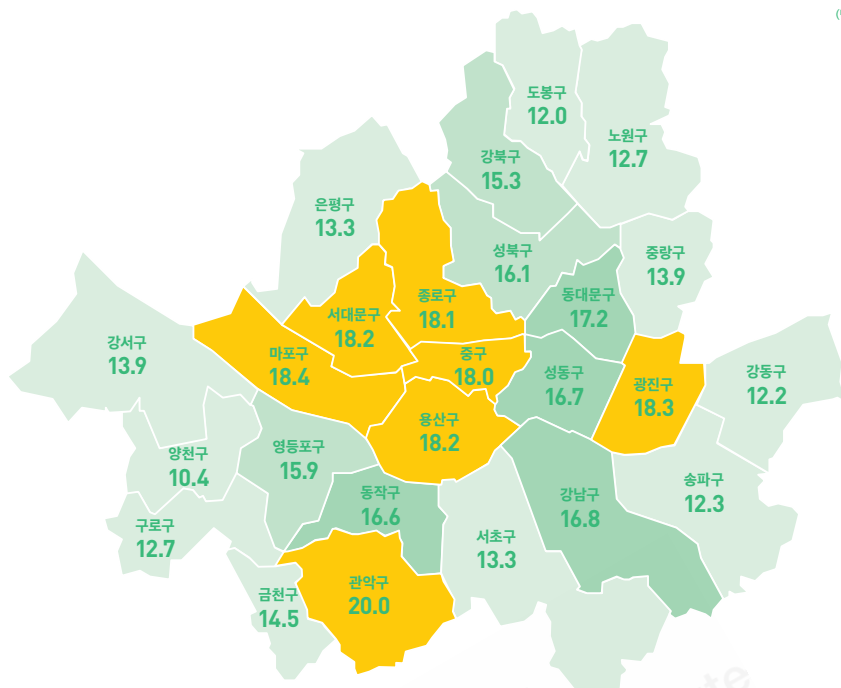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구별 여성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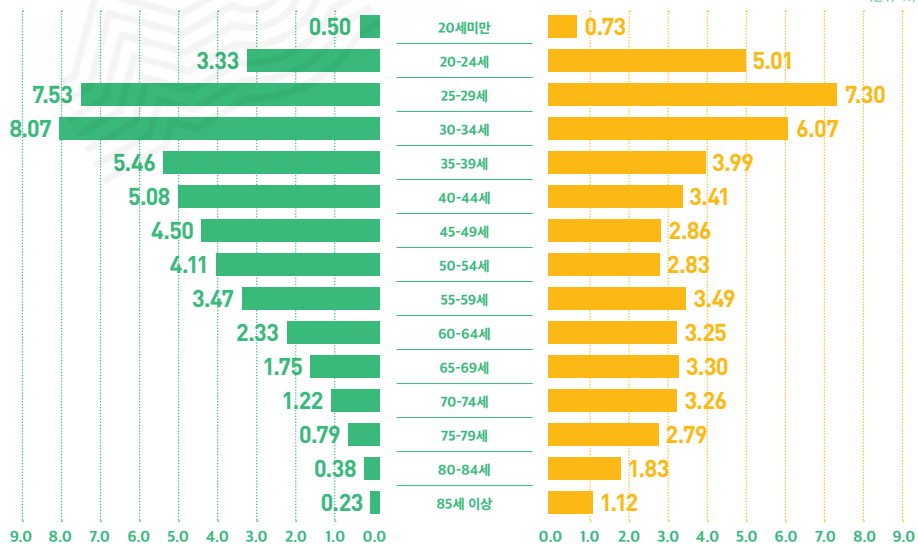
(단위: %)



## 서울시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분포(2015년 기준)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부문)

(단위: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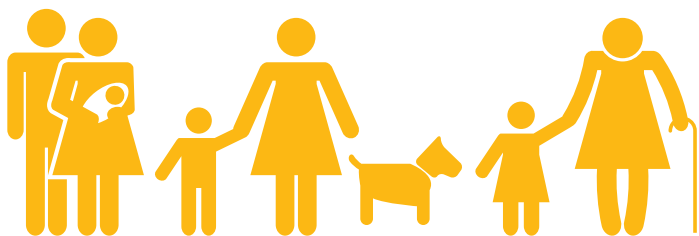


여자

- \_\_\_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 \_\_\_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 \_\_\_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_\_\_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 \_\_\_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 \_\_\_ 청년층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까?
- \_\_\_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_\_\_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2



**보통 사람**

**People  
in Seoul**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136** 만여 명  
**14.2**%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71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136만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14.2%를 차지하였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주의 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없이 25개 자치구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다.

베이비붐 세대 비율(전국)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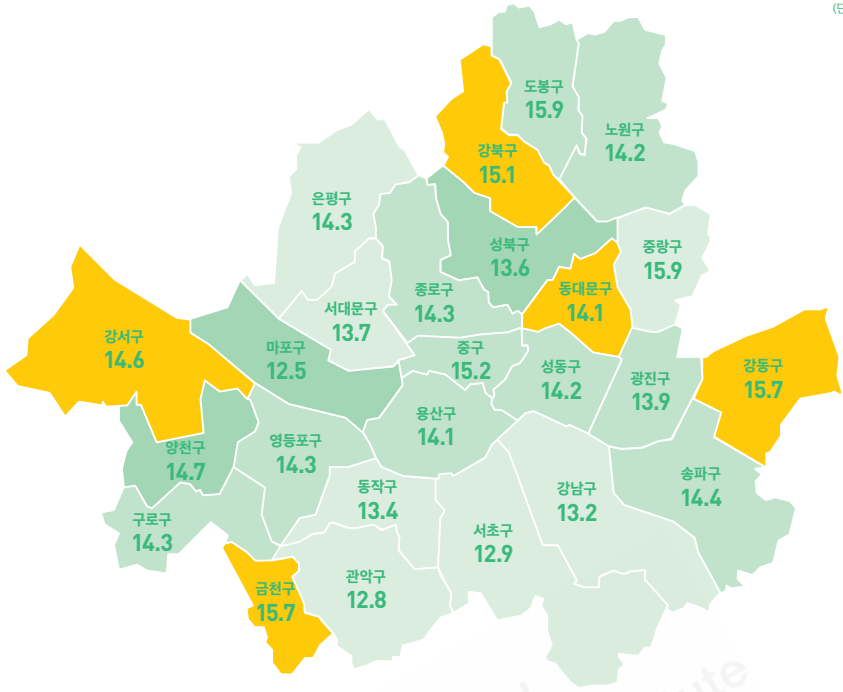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비율(서울)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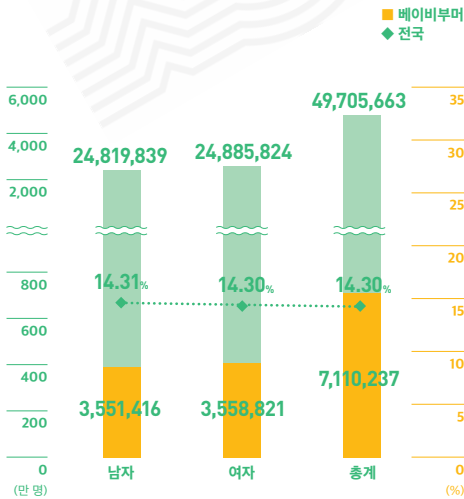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비율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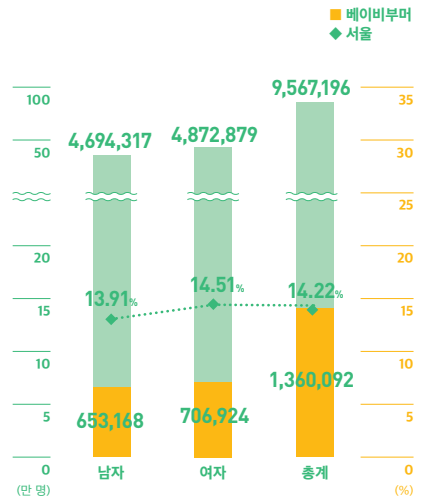
(단위: %)



## 2015년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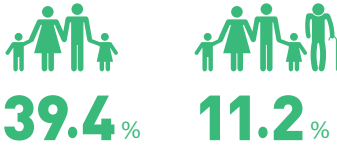


## 2015년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읍면동)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한국전쟁 이후 다산시기에 출생하여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런 통과 의례였다.

2015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39.4%는 4인 이상의 가구를 꾸리고 있었으며, 5인 이상의 비율은 11.2%에 달한다. 1-2인의 소형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추이와는 상이한 모습이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73.2%는 기혼자이며, 이혼/별거 가구주가 15.3%로 높게 나타났다.

4인 이상 가구

39.4%



5인 이상 가구

11.2%



기혼자 비율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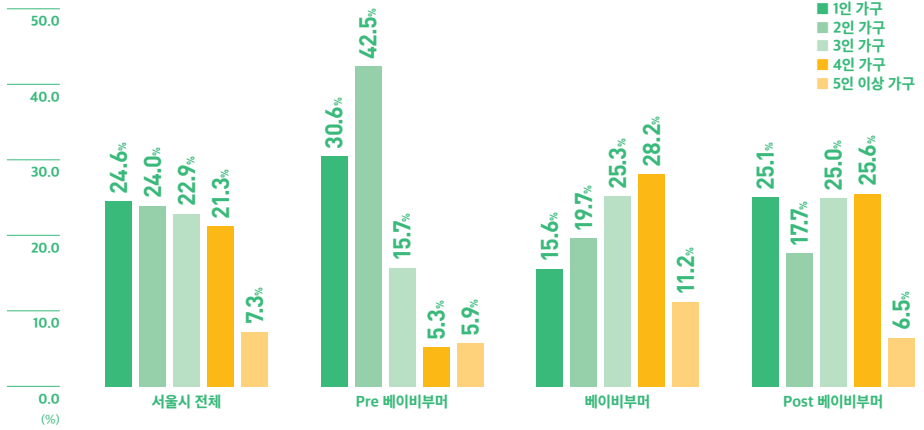
이혼/별거자 비율

15.3%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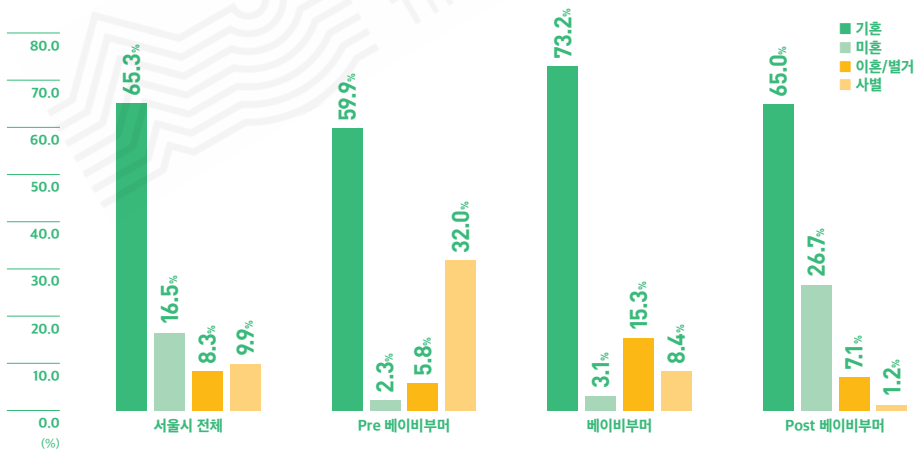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가구주 세대별 결혼상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자가 마련’, ‘마 이카 시대’의 꿈을 경험한 세대이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62.5%로 10가구 중 6가구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비율은 베이비붐 이전세대 가구주의 60.9%보다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25.9%보다 2배이상 높은 비율이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

62.5%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

25.9%



주택형태(가구주)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Post 베이비 부머
단독주택	34.6	36.4	34.4	33.9
아파트	42.6	42.7	43.9	42.1
다세대 주택	12.2	11.6	11.7	12.7
연립주택/빌라	10.4	9.2	9.9	11.0
기타	0.2	0.1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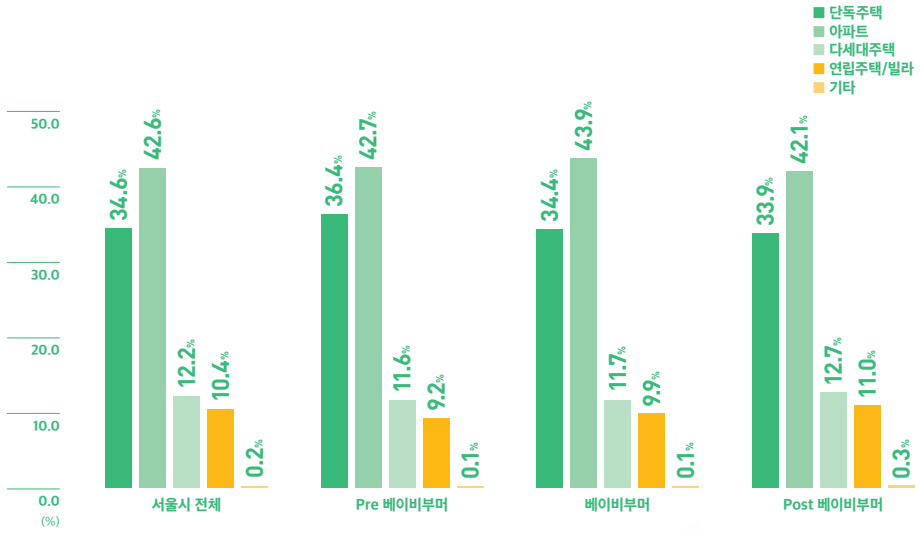
주택점유형태(가구주)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Post 베이비 부머
자가	41.1	60.9	62.5	25.9
전세	32.9	19.8	23.8	41.3
보증금 있는 월세	24.8	18.0	12.7	31.6
보증금 없는 월세	1.2	1.2	1.0	1.2
사글세	0.0	0.1	0.0	0.0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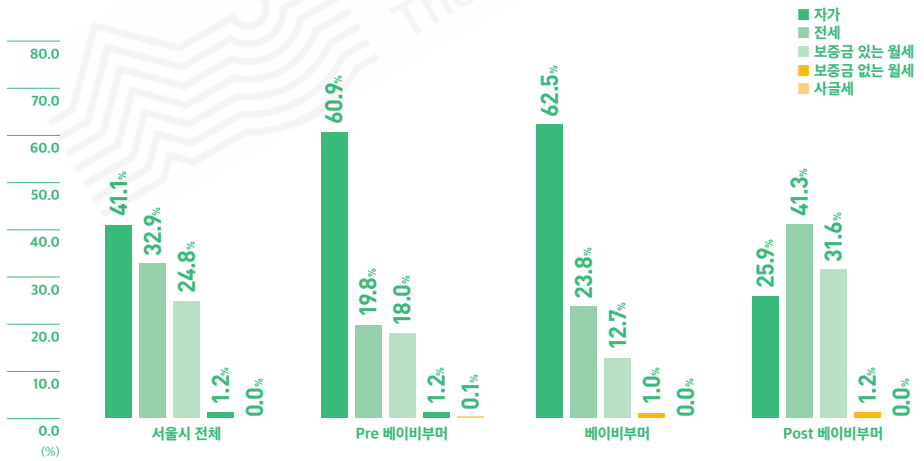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주택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가구주 세대별 주택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51.1%



41.3%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기회를 통한 계층상승의 열망이 강한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과반 이상인 51.1%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이다.

이러한 상대적 고학력 세대의 특성은 직업 특성으로 이어지는데,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41.3%는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이다.

관리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의 비중

41.3%



고졸 이하 학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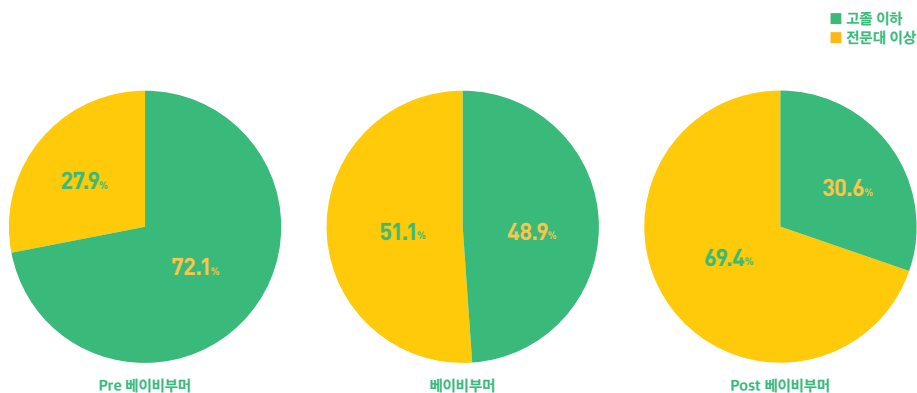
48.9%

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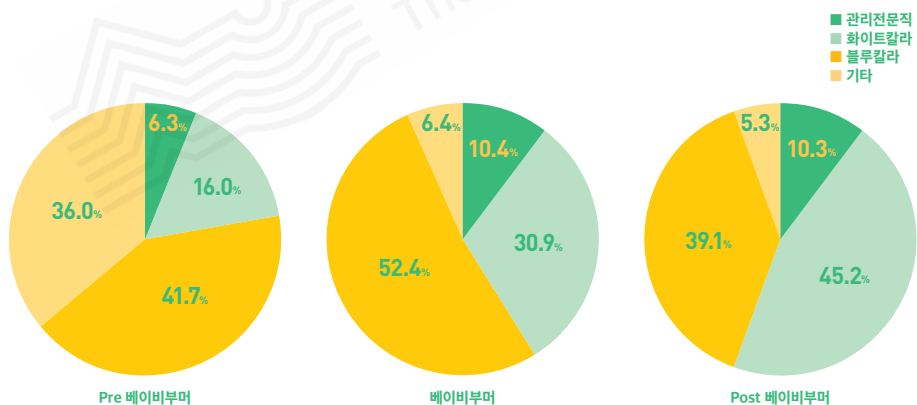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학력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가구주 세대별 직업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49.1%



48.8%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가구 부채 비율은 49.1%로 나타났으며, 가구 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구매 및 임차이다.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64.6%가 자가 소유자였으며 베이비붐 세대주 응답자의 58.1%가 주택 구매 및 임차를 부채의 가장 큰 이유로 말했다.

2015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 또는 신용 대출 중에서 거주 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48.8%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 가구의 상당수가 주택 임차 및 구매로 인해 금융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주의 부채비율

49.1%



부채있는 베이비붐 세대주 중 자가소유 비율

64.6%



주택 구매 및 임차로 인한 부채 비율

58.1%

## 대출 용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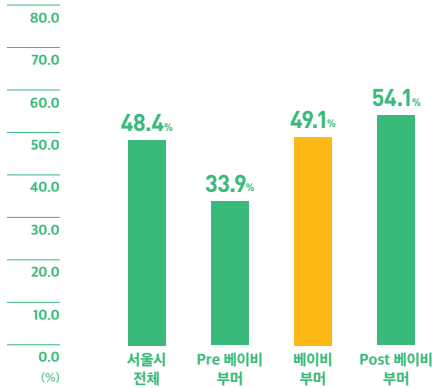
담보 대출용도별

거주주택마련	41.9%
거주주택이외부동산 마련	17.3%
전(월)세 보증금 마련	6.9%
부채 상환	2.7%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	22.8%
생활비 마련	3.7%
기타 용도 등	4.6%
합계	100.0%

출처: 통계청,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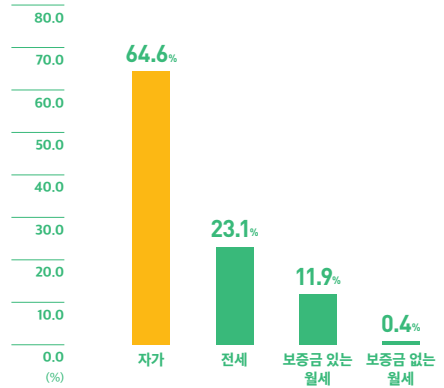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부채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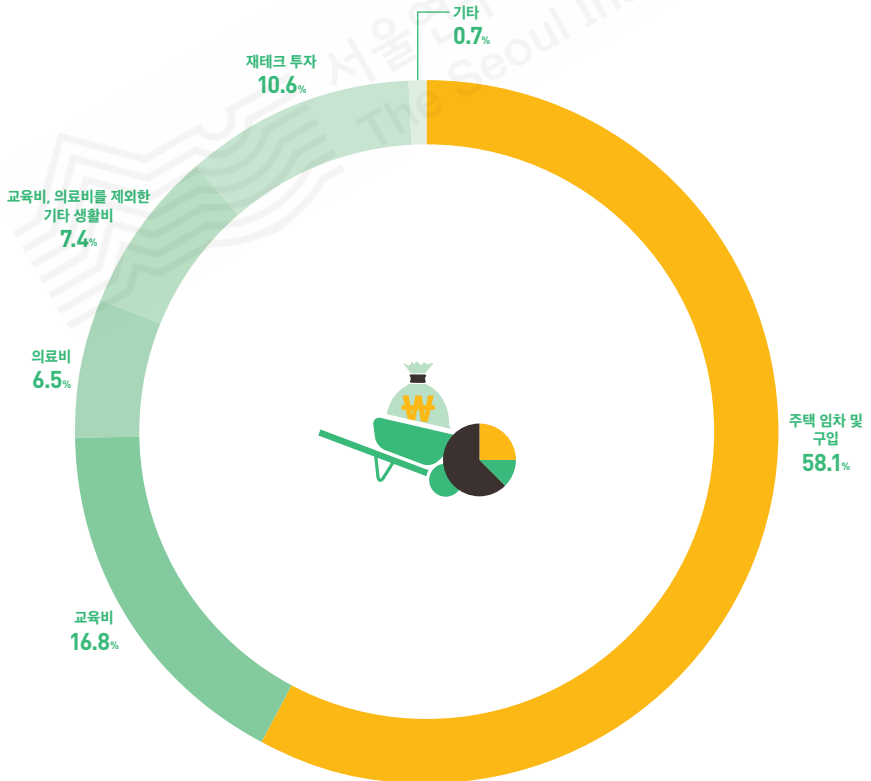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중 부채있는 사람들의 집소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베이비부머의 부채이유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150-200**만원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2026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 은퇴 후 삶을 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은퇴에 임박해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일하고 싶어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희망 소득으로 150-250만원 미만인 응답이 54.7%로 나타났다(150-200만원 30.4%).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전히 노동 의지가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사회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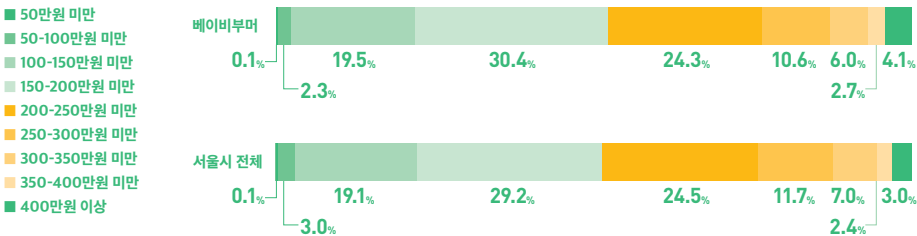
은퇴 후 적정 월생활비

**150-200**만원

응답 최빈값 30.4%

은퇴 후 적정 월생활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사무직 **45.2%**

 서비스 **12.1%**

 판매업 **12.6%**

서울의 청년층(25-34세)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으로 미래 서울의 성장의 주역이다. 이들 세대는 서울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한다.

청년층의 직업분포를 보면 45.2%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서비스와 판매업 종사자는 각각 12.1%, 12.6%를 차지했다.

사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층의 경제 기반은 약하다. 청년층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월세의 비율이 70.4%로 청년층 10명 중 7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

청년층 비율

**20.1%**



사무직 종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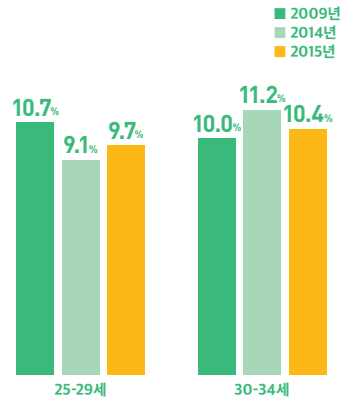
**45.2%**



전·월세의 비율

**70.4%**

서울의 청년층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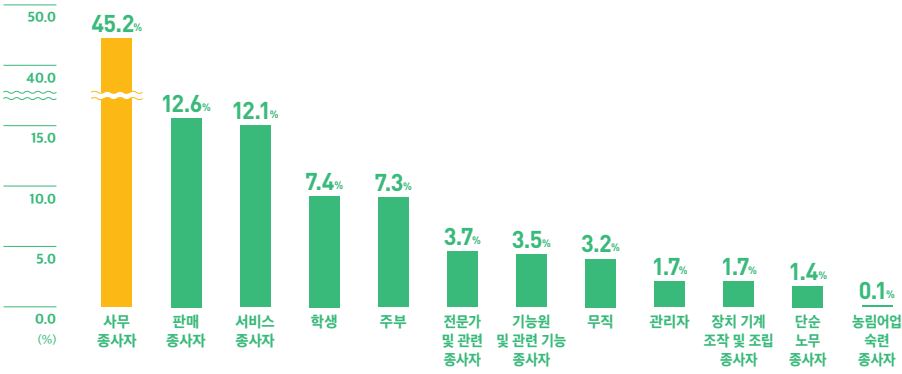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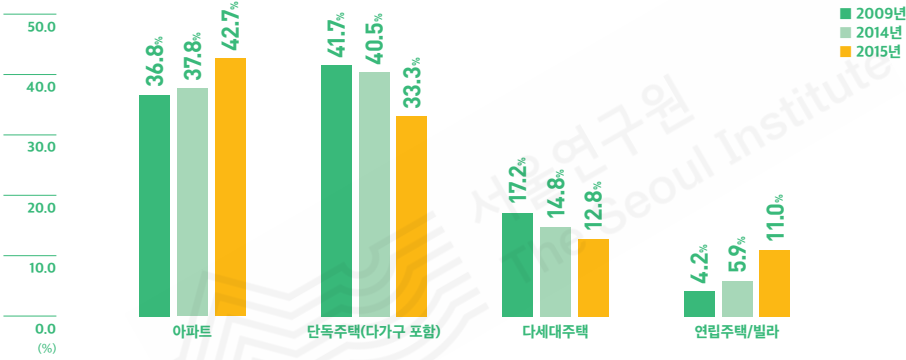
## 직업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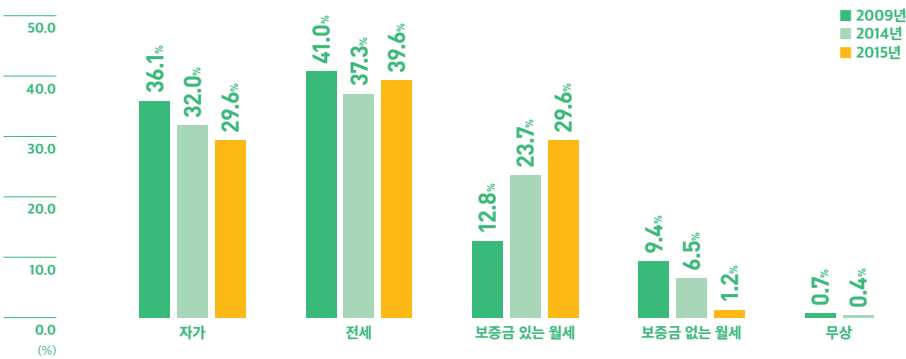
## 주거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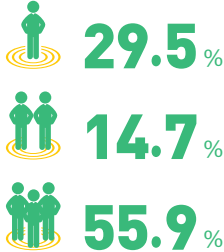


## 주거점유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2010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서울의 미혼 청년층은 전체 청년층의 68.2%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2015년 서울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3.0세, 30.8세로 2000년의 29.7세, 27.3세에 비해 3살 정도 높아졌다.

서울의 미혼 청년층의 55.9%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44.2%는 1-2인 가구형태였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5-6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갬거루족' 생활을 하고 있다.

## 청년층의 미혼 비율

68.2 %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 초혼 연령



3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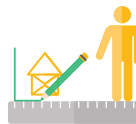
30.8세

출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 1-2인 가구 비율

44.2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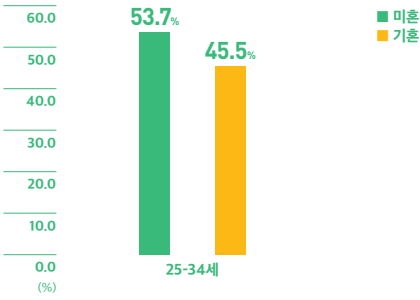
55.9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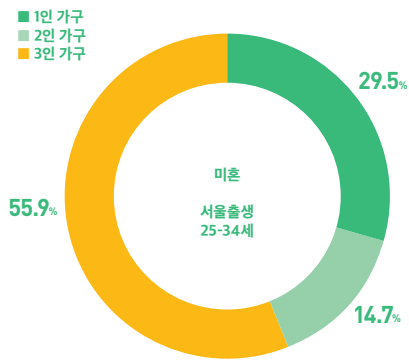
## 결혼 상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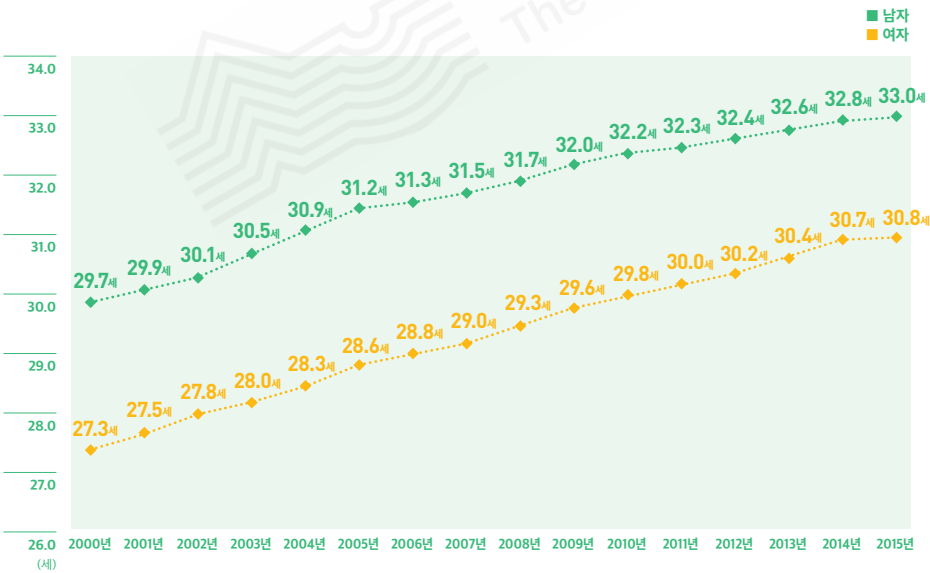
## 미혼 청년층의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서울시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53.7%



10.4%

결혼을 미룬 채 캥거루 족 생활을 하는 서울의 많은 청년층은 개인 중심적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2015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응답자의 27.0%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년 10명중 적어도 3명은 아무런 사회 활동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 셈이다.

서울의 청년층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53.7%(중복응답)를 차지한 동창 모임이었다. 학연 중심의 사회 모임이 이들이 가진 사회 자본의 가장 큰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친목회가 27.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청년층은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인데,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17%에서 2015년 10.4%로 줄었다.

사회활동 미참여 비율

27.0%

동창 모임

53.7%



친목회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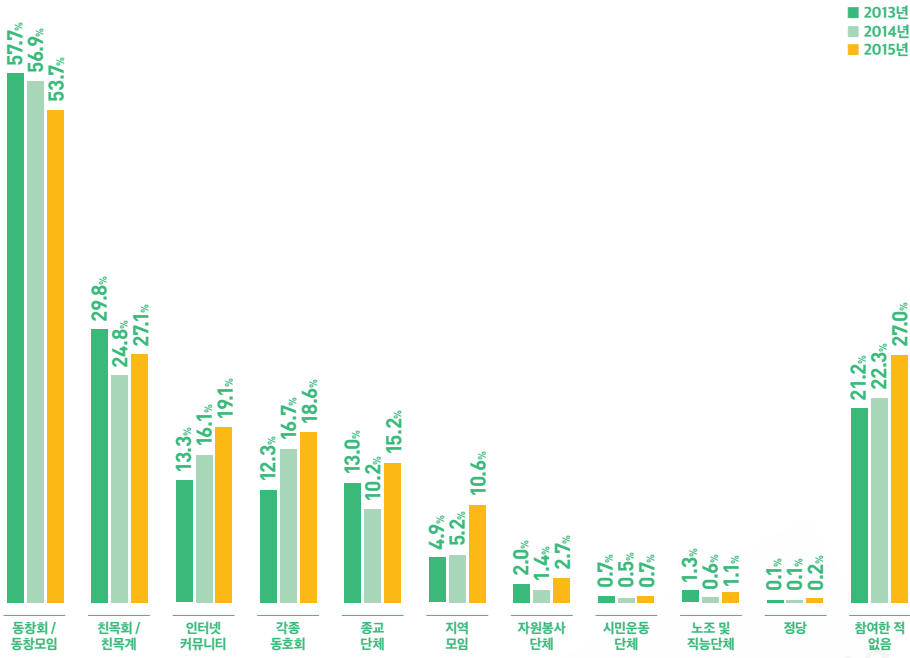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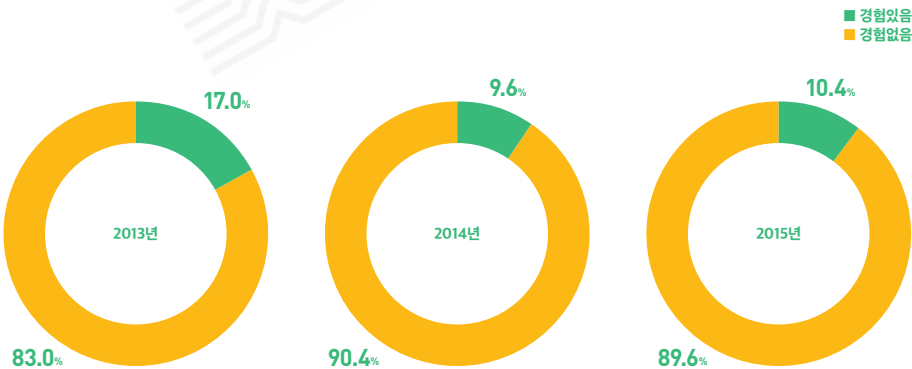
사회 연결망(중복응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서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1%를 넘어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서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다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초고령 사회가 된 미래 서울에서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 즉 노년부양비는 29.1명으로 추계된다. 이는 2005년의 9.3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고령인구 비율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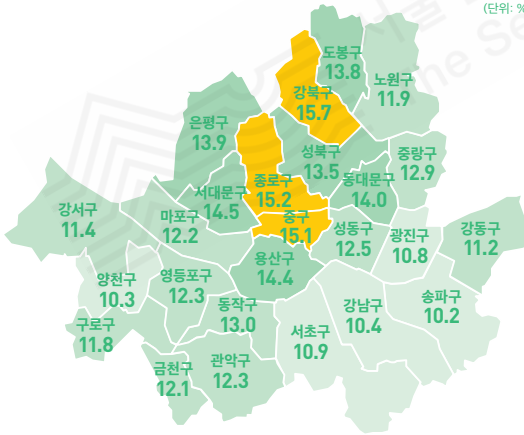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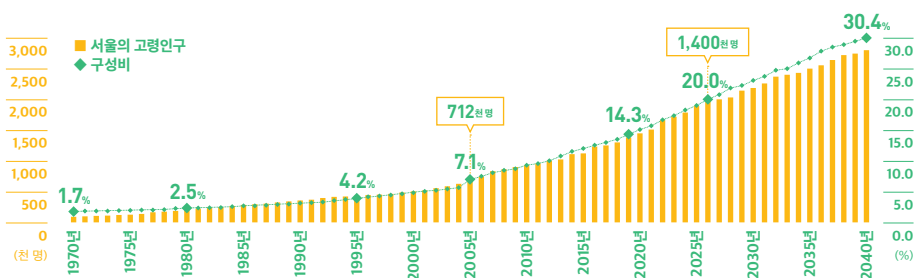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단위: %)



고령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년 추계 기준)





**Everyday Life  
in Seoul**



## 1 일상생활 만족도

- \_\_\_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_\_\_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_\_\_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 \_\_\_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 \_\_\_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 2 일상생활 환경

- \_\_\_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 \_\_\_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 \_\_\_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 \_\_\_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 \_\_\_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 \_\_\_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 \_\_\_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_\_\_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_\_\_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 \_\_\_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 \_\_\_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 일상생활 만족도

Living  
Satisfaction

#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자신의 경제 환경 전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2015년 5.30점(10점만점)으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자치구별 경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가 각각 4.91점, 4.99점, 5.09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는 각각 5.51점, 5.48점, 5.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5년 서울 시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5.30 점



## 소득별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 경제생활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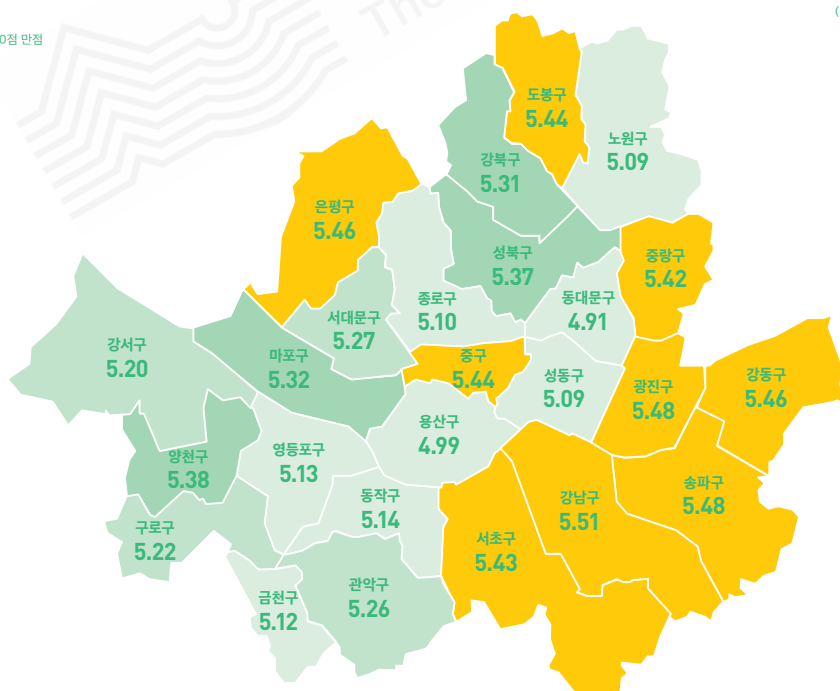


## 구별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자신의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평균 6.16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주거 환경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종로구, 도봉구, 금천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6.48점, 6.41점, 6.33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각각 5.50점, 5.54점, 5.9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5년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6.16** 점



종로구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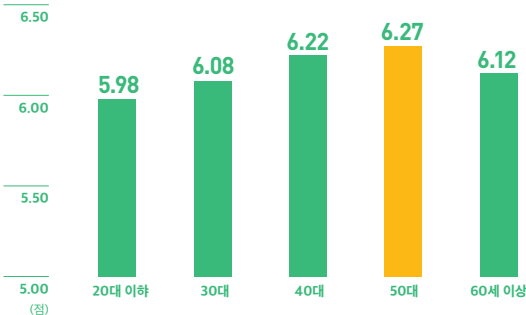
**6.48** 점

## 연령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7.00



##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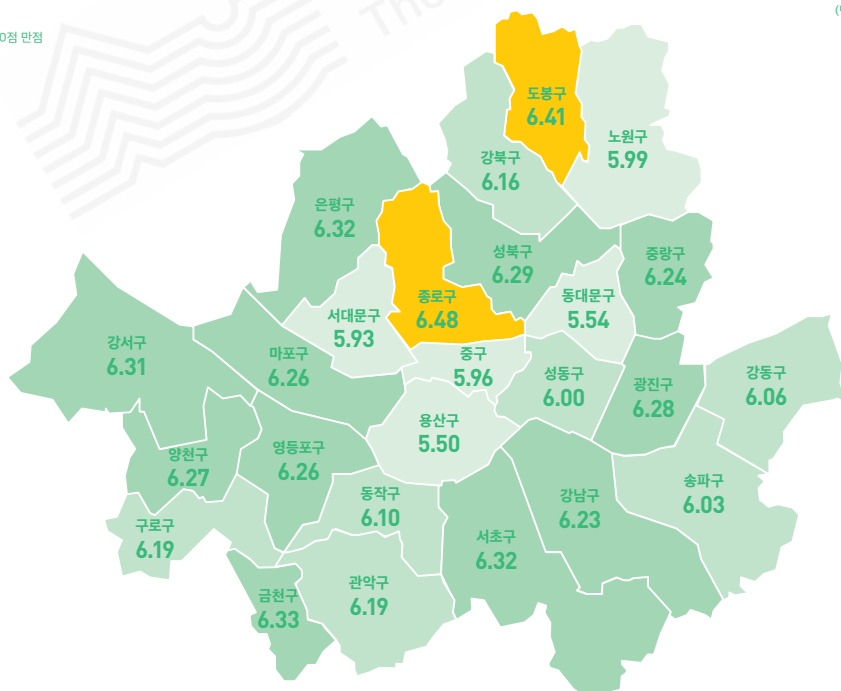


## 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강서구

6.55점

서울시민들의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6.28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인 건강상태, 가정 생활, 친지/친구관계, 사회생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05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상태 만족도 점수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강서구(6.55점), 강남구(6.52점), 금천구(6.50점), 동작구(6.49점) 등이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용산구(5.98점), 동대문구(6.04점), 광진구(6.07점), 도봉구(6.11점) 등이다.

2015년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

6.28점



## 서울시민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단위: 점)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5년	6.60	5.11	6.71	6.86	6.44
2006년	6.63	5.21	6.75	6.85	6.54
2007년	6.72	5.38	6.74	6.82	6.50
2008년	6.88	5.55	6.73	6.81	6.57
2009년	6.88	5.65	6.75	6.82	6.60
2010년	6.88	5.88	6.75	6.80	6.64
2011년	6.90	5.90	6.82	6.89	6.73
2012년	7.06	6.05	6.90	6.99	6.84
2013년	7.15	6.23	6.95	7.03	6.94
2014년	7.16	6.21	7.08	7.14	7.01
2015년	7.18	6.28	7.09	7.16	7.04

## 연도별 재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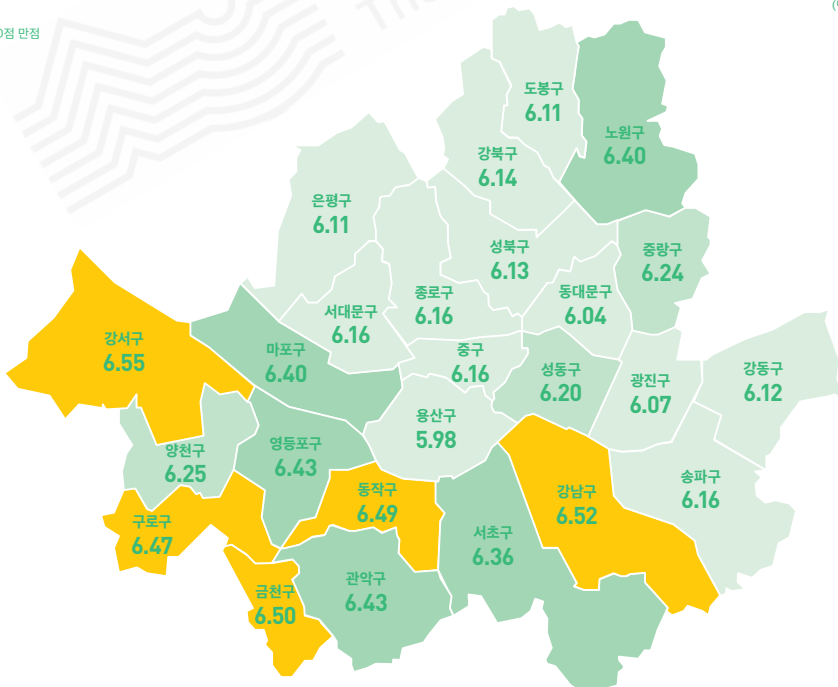


## 구별 재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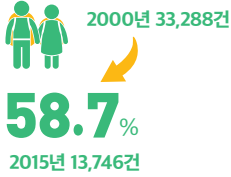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현대사회 위협요인 예상피해 정도는 '핵폐기물 방사능사고'(6.38점), '폭력범죄'(6.36점), '전염병'(6.27점), '경제위기'(6.17점), '안전사고'(6.16점), '실업'(6.14점), '자연재해'(6.12점), '안보'(6.0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서울의 강력범죄사건(강도, 살인)발생건수는 총 439건으로 이중 살인이 163건, 강도가 276건이었다. 지난 15년간 서울의 강력범죄사건은 2009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의 발생 추이 역시 두 차례의 반등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청소년 범죄는 2005년부터 반등하여 2007년에 정점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15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총 13,746건으로 2000년의 33,288건에 비해 무려 58.7%가 줄어 들었다.

## 2015년 도시위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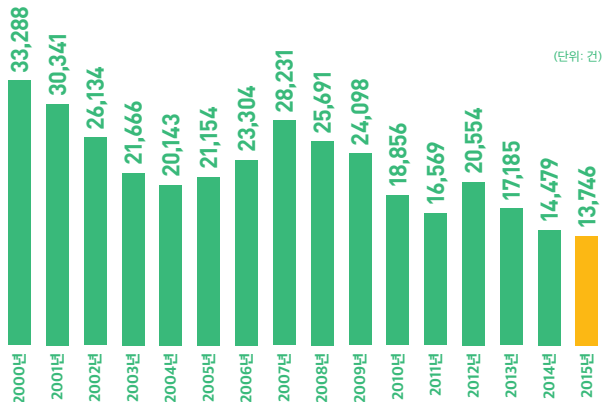
주: 10점 만점 (단위: 점)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6.38
전염병	6.27
안전사고	6.16
안보	6.02
경제위기	6.17
실업	6.14
부정부패	5.66
폭력 범죄	6.36
사회 갈등	5.63
컴퓨터 바이러스	5.94
피해정도 종합	6.08
자연재해	6.12

##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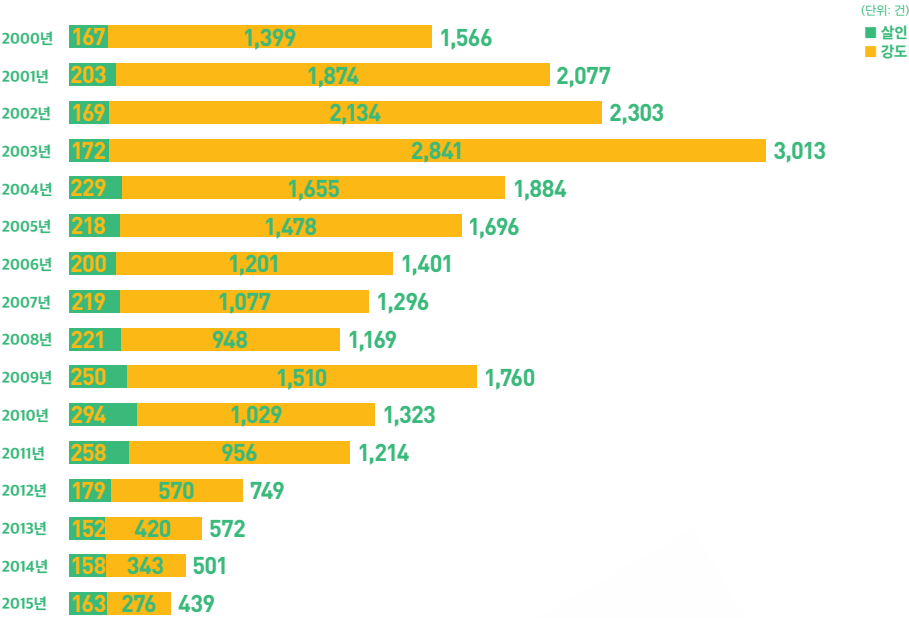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발생현황

주: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2008년부터는 소년법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범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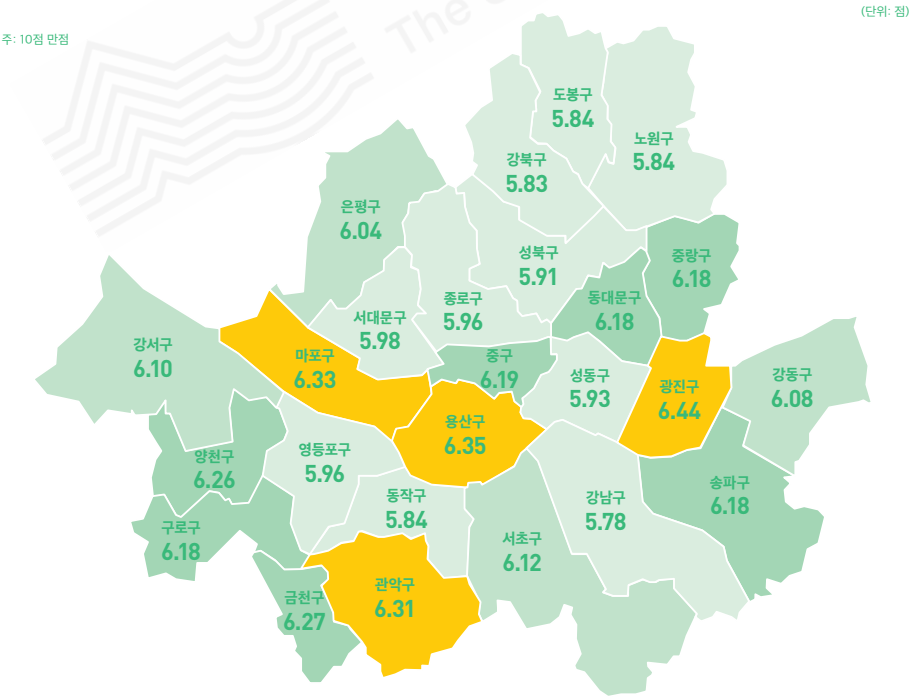
연도별 흉악사건 발생 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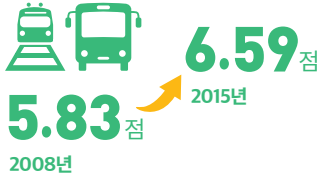


구별 도시위험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하루 총 통행량에서 지하철·철도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곧 서울의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만족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2015년의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대중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종합만족도는 2008년 5.83 점에서 2015년 6.59점으로 7년 동안 13.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교통수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택시는 5.14점에서 5.88점으로 14.4%, 지하철은 6.30점에서 7.01점으로 11.3%, 그리고 버스는 6.00점에서 6.88점으로 14.7% 증가하였다.

대중교통 종합만족도

6.59 점



지하철 만족도

7.01 점



택시 만족도

5.88 점



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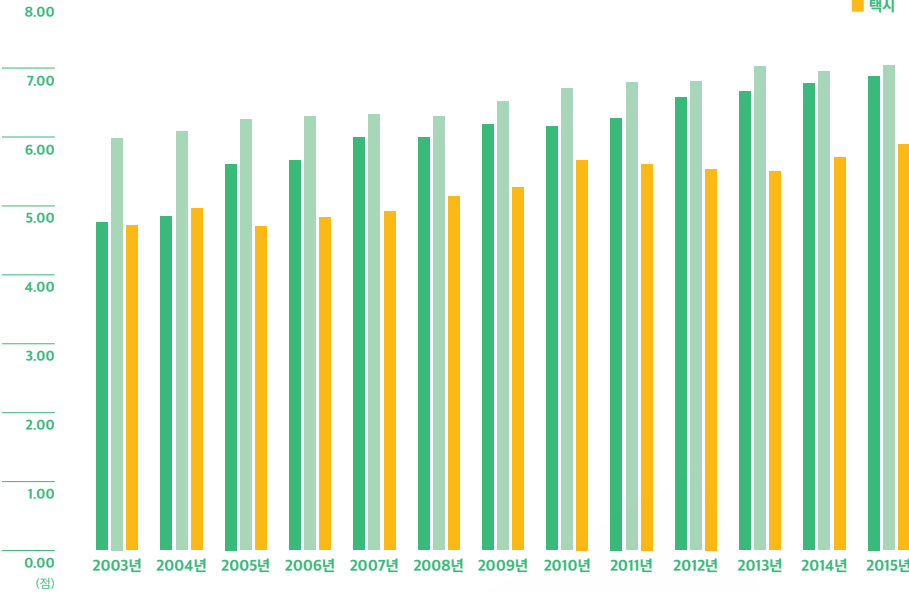
6.88 점



교통수단이용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버스	지하철	택시
2003년	4.76	5.99	4.72
2004년	4.85	6.08	4.96
2005년	5.61	6.26	4.70
2006년	5.66	6.30	4.83
2007년	6.00	6.33	4.92
2008년	6.00	6.30	5.14
2009년	6.19	6.52	5.27
2010년	6.16	6.71	5.67
2011년	6.28	6.79	5.61
2012년	6.58	6.81	5.54
2013년	6.67	7.03	5.50
2014년	6.78	6.95	5.70
2015년	6.88	7.01	5.88

- \_\_\_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 \_\_\_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 \_\_\_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 \_\_\_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 \_\_\_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 \_\_\_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 \_\_\_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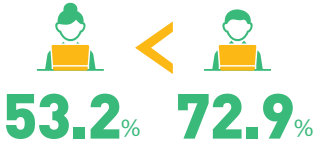


# 2



## 일상생활 환경 Living Conditions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2015년 만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총 2,374천명으로, 2000년의 2,009천명에 비해 18.2% 증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2%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의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남녀간 격차는 크다. 2000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5.8포인트였는데(남성 74.6%, 여성 48.8%), 2015년 기준 남녀격차는 19.7포인트로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2,374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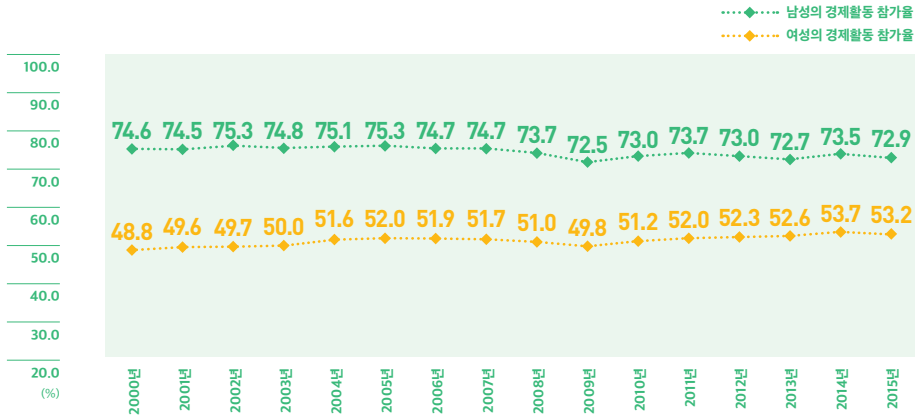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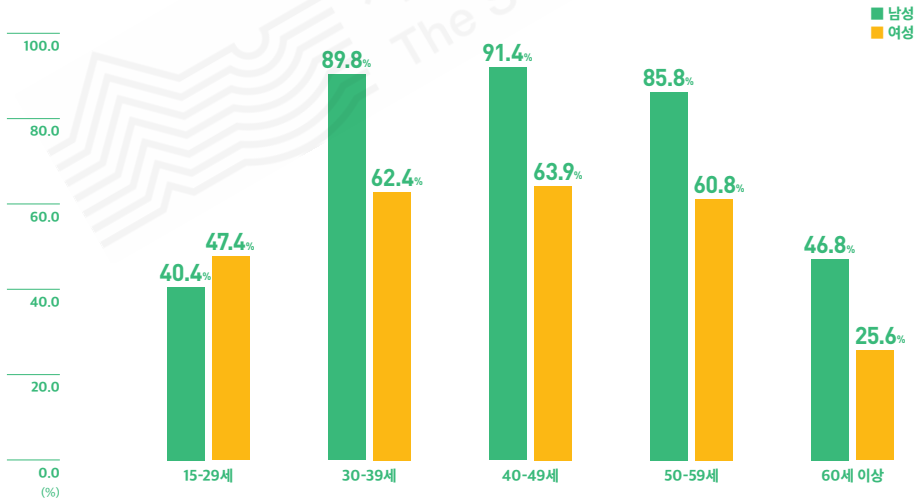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범주별 고용률(서울)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5 2분기)





#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14년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97.9%로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97.9%까지 도달하였다. 100가구 당 98개의 가용주택이 확보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은 89.1%로 25개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았으며, 종로구, 강동구, 송파구 등 서울의 16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보급률(2014년)

97.9%



## 주택보급률이란?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100)하고 있음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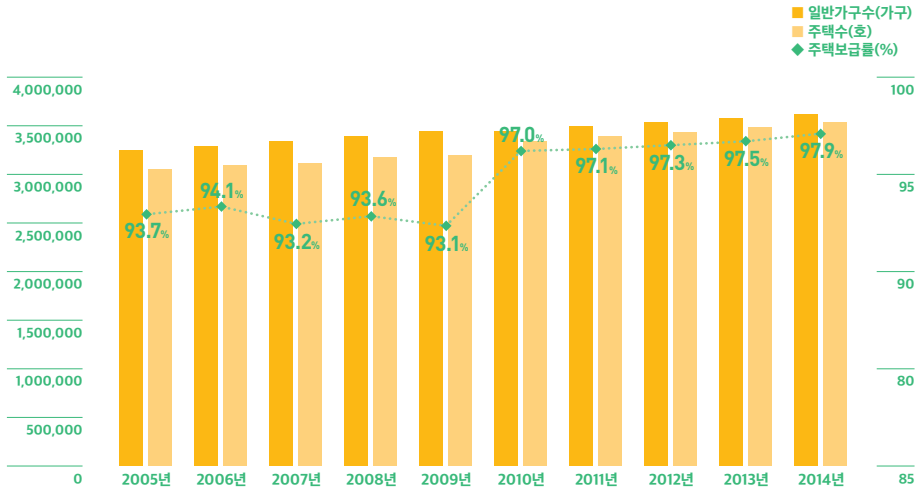
## 구별 주택보급수

	일반가구수	주택수
종로구	60,684	55,275
중구	44,864	45,745
용산구	96,157	92,110
성동구	103,603	108,205
광진구	140,172	137,286
동대문구	125,458	134,704
중랑구	151,095	152,468
성북구	177,555	166,234
강북구	120,828	120,571
도봉구	121,032	121,302
노원구	202,158	200,120
은평구	163,262	174,249
서대문구	108,570	111,435
마포구	146,930	142,246
양천구	159,404	158,604
강서구	207,653	202,039
구로구	151,559	150,429
금천구	87,685	89,380
영등포구	141,212	134,927
동작구	153,583	151,845
관악구	230,298	205,278
서초구	147,625	147,797
강남구	214,332	208,718
송파구	250,703	231,514
강동구	175,029	161,270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 연도별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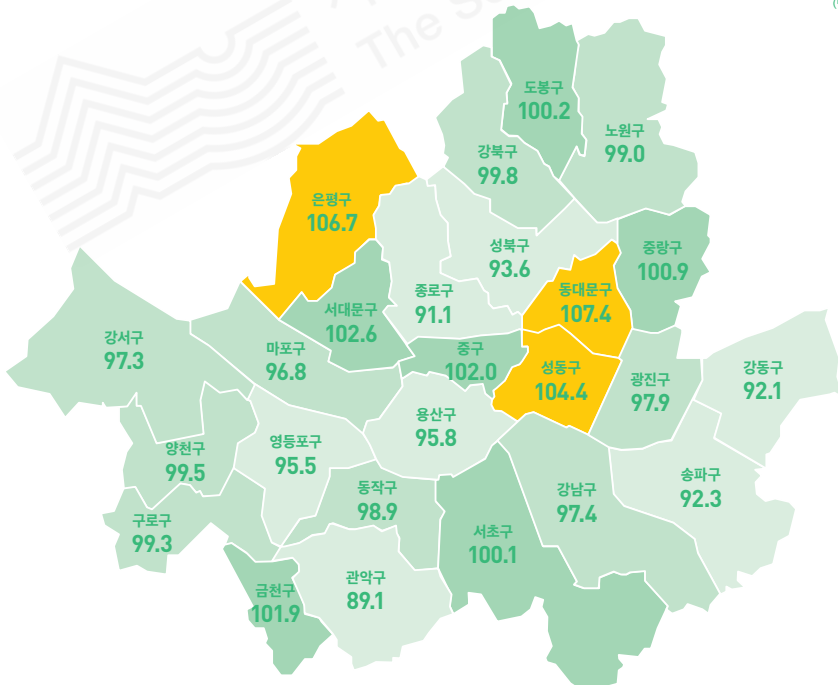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 구별 주택보급률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단위: %)



#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들은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주로 살게 될까? 서울시 가구주의 62%는 10년 후에 여전히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5%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서울의 주택유형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희망 주거 형태 : 아파트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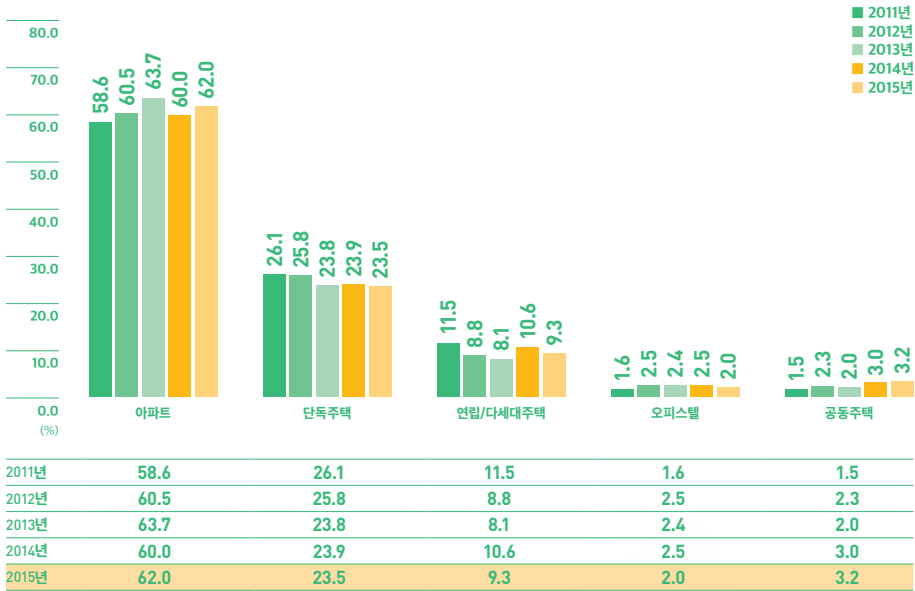
희망주거형태 : 단독주택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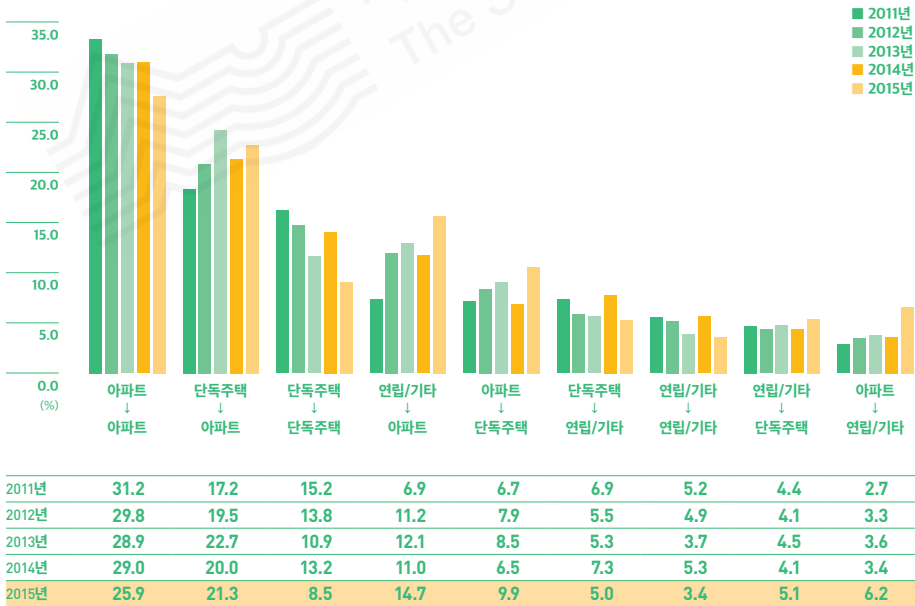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현재 대비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추이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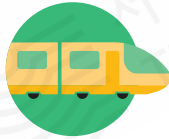


지하철과 철도는 서울시민의 ‘발’이다. 서울시 지하철(철도) 수송분담률은 2014년 기준 39%로 나타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버스는 27.0%의 수송분담률을, 승용차는 22.8%의 수송분담률을 보였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996년 29.4%에서 2013년 38.8%, 2014년 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1996년 10.4%로 두 자리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6.8%를 보였다.

2014년 지하철·철도 수송분담률

39.0%



2014년 버스 수송분담률

27.0%



2014년 택시 수송분담률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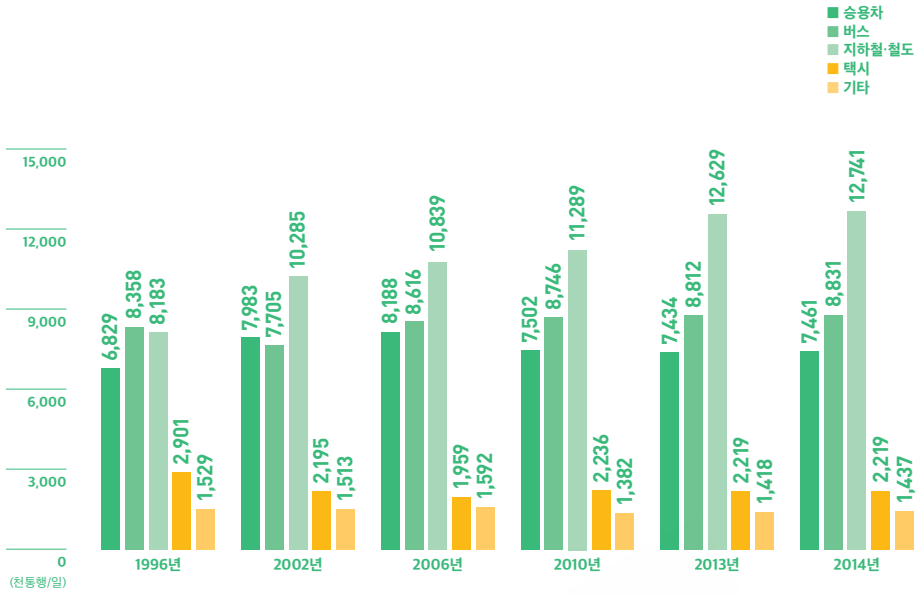
교통수단별 수송분담(2014년)

	동행량 (천통행/일)	수송분담률 (%)
승용차	7,461	22.8
버스	8,831	27.0
지하철·철도	12,741	39.0
택시	2,219	6.8
기타	1,437	4.4
총합	32,690	100.0

출처: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5년주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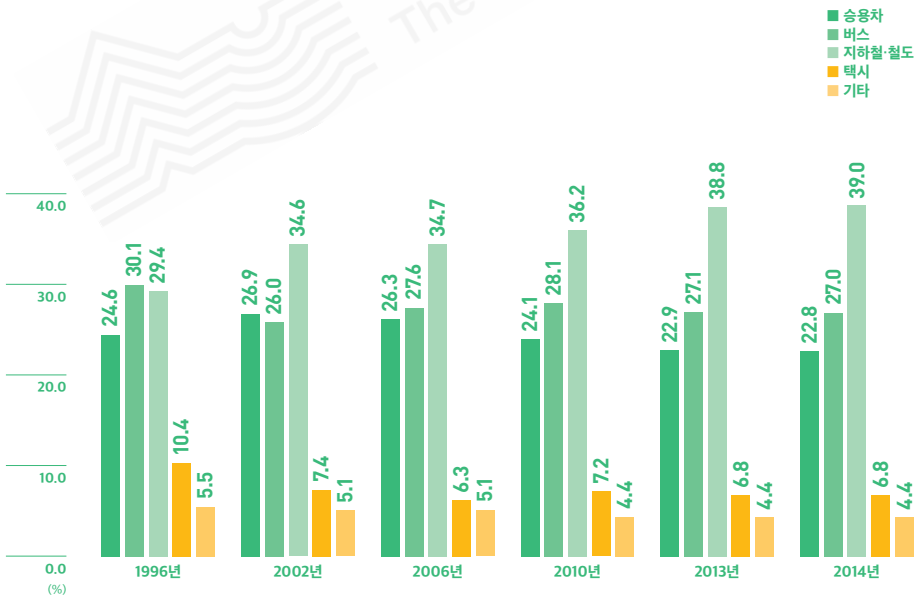
## 교통수단별 통행량

출처: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5년주기조사



##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출처: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5년주기조사



#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서울의 화재 사고는 2001년 7,379건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줄어들다가 2007년의 갑작스러운 반등과 함께 2008년 6,731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다시 반등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화재발생건수는 5,921건이며, 한해 동안 지역적으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504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금천구에서 가장 적은 131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해일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액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화재 발생이 줄어들었던 2001년-2006년 사이 화재 피해액 역시 161억 6천 2백여만원에서 54억 9천 7백여만원으로 66% 감소하였지만, 화재 발생이 반등했던 2007년, 2008년의 경우 화재 피해액은 각각 178억 9천 5백만원, 2008년 263억 2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화재피해액은 143억 3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

5,921 건



2015년 강남구 화재발생 건수

50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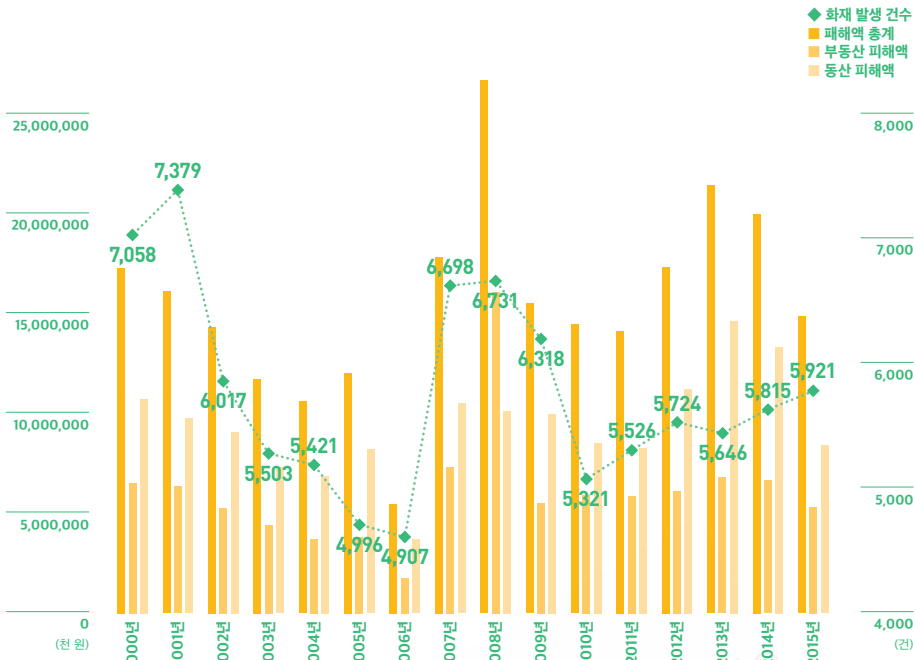
2015년 화재발생 피해액

143.3,727 만원



화재발생 건수총계와 피해액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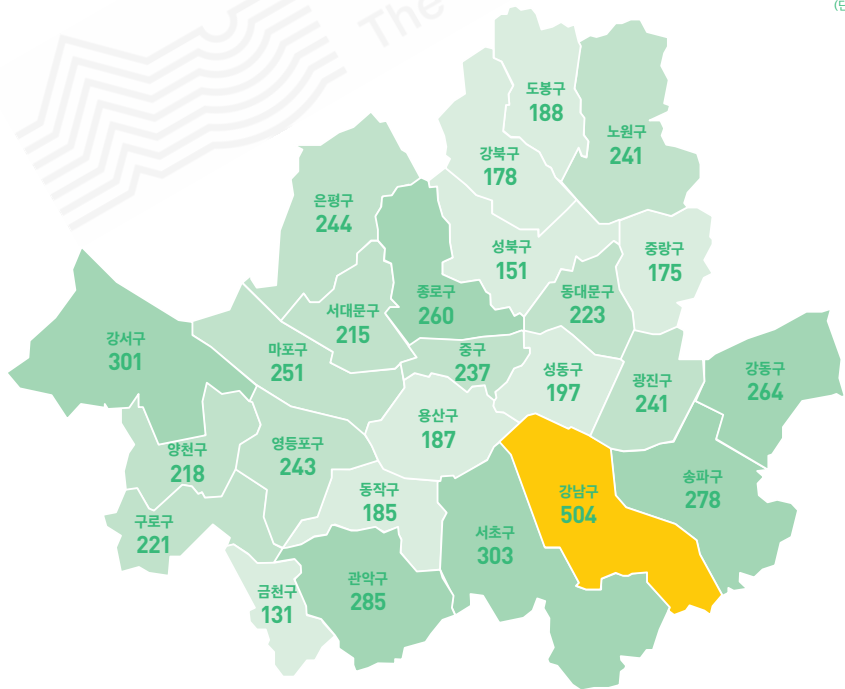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구별 화재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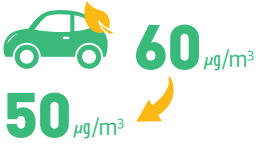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단위: 건)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서울시 기준농도 변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6  $\mu\text{g}/\text{m}^3$ 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2년 41  $\mu\text{g}/\text{m}^3$ 까지 떨어져 2015년에는 46  $\mu\text{g}/\text{m}^3$ 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표 청정 지역인 제주도의 2011년 미세먼지 수준인 42  $\mu\text{g}/\text{m}^3$ 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 이러한 대기질의 개선은 서울시의 정책 개입의 결과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여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 관리를 시행했다. 2007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을 기존의 60  $\mu\text{g}/\text{m}^3$ 에서 50  $\mu\text{g}/\text{m}^3$ 로 대폭 강화하였다.

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46  $\mu\text{g}/\text{m}^3$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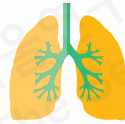
#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화석 연료의 연소 공정 및 화학 물질 제조 공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일산화질소보다 5-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중증 호흡기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서울의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2008년의 0.038 ppm을 정점으로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감소하며 2012년에는 최저치인 0.030ppm까지 낮아졌다. 2013-2015년의 경우 0.032-0.033 ppm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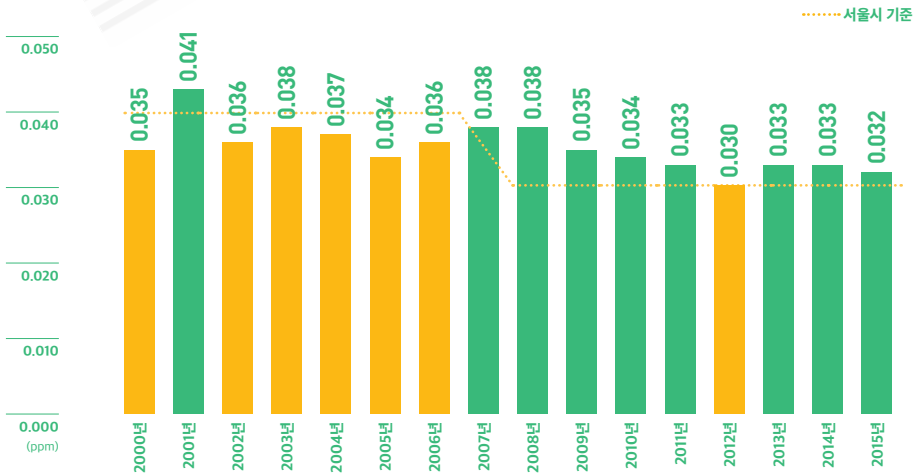
2015년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0.032 ppm



## 서울의 NO<sub>2</sub> 오염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및 메트로의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04년  $107.8\mu\text{g}/\text{m}^3$ 에서 2015년  $81.0\mu\text{g}/\text{m}^3$ 로, 2007년  $112.5\mu\text{g}/\text{m}^3$ 에서 2015년  $90.7\mu\text{g}/\text{m}^3$ 로 19-25% 가량 낮아졌다. 지하상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2006년  $64.3\mu\text{g}/\text{m}^3$ 에서 2015년  $50.2\mu\text{g}/\text{m}^3$ 로 약 22% 감소했다. 지하역사와 상가의 공기 오염도 모두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인  $140\mu\text{g}/\text{m}^3$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

140  $\mu\text{g}/\text{m}^3$



2015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도시철도공사

81.0  $\mu\text{g}/\text{m}^3$

2015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지하상가

50.2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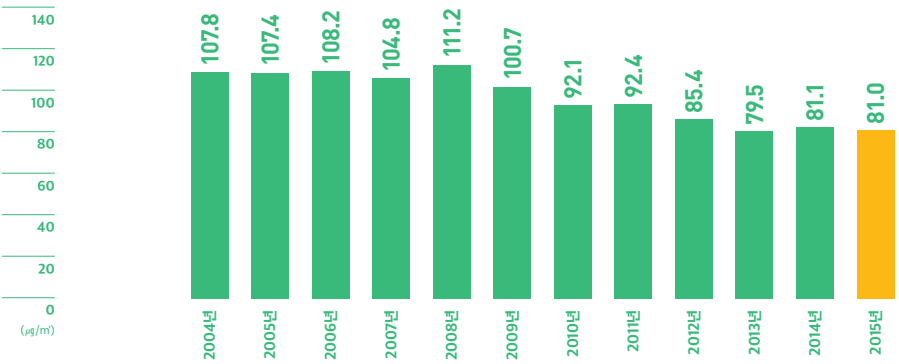
2015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서울메트로

90.7  $\mu\text{g}/\text{m}^3$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도시철도공사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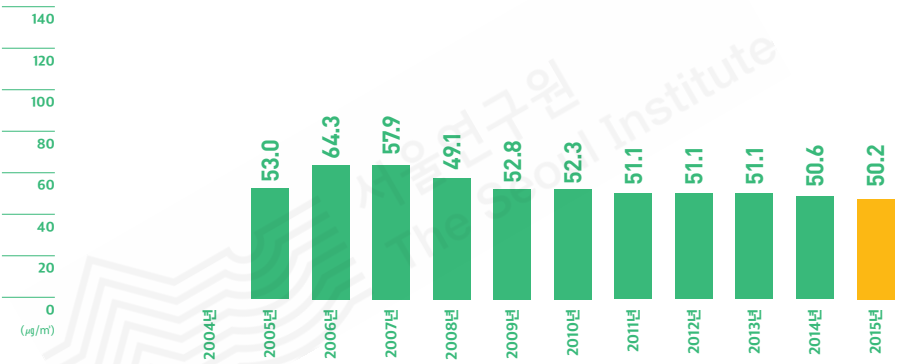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지하상가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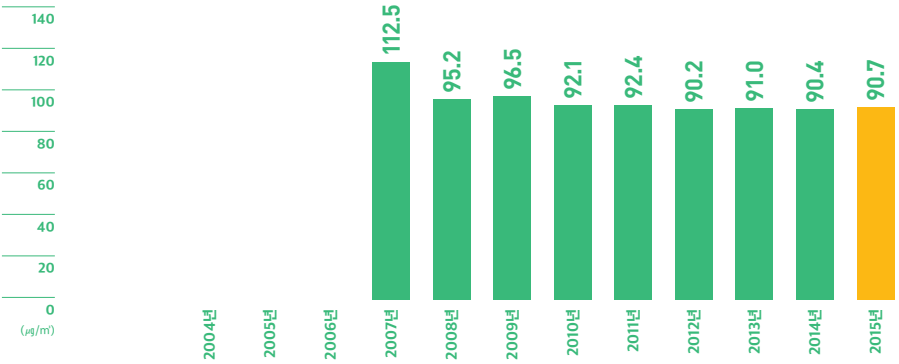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서울메트로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





서울의



웰빙  
리빙



**Well-being  
in Seoul**



- \_\_\_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 \_\_\_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 \_\_\_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 \_\_\_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 \_\_\_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 \_\_\_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대졸



10대



500만원 이상



미혼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는 2015년 기준 7.13점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4.7%가 7점에 그리고 19.5%는 8점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행복 지수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7.2점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40대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준다. 특히 5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행복 지수의 급격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결혼과 행복의 상관관계이다. 2015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근소한 차이이나 0.06점 높은 행복 지수를 나타냈다. 한편, 기혼자는 배우자와 이혼/별거 또는 사별한 사람보다 각각 0.24점, 0.34점 높은 행복 지수를 보여준다. 혼인 상태에 따른 행복 지수의 단순 비교 결과만 볼 때 결혼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결혼생활보다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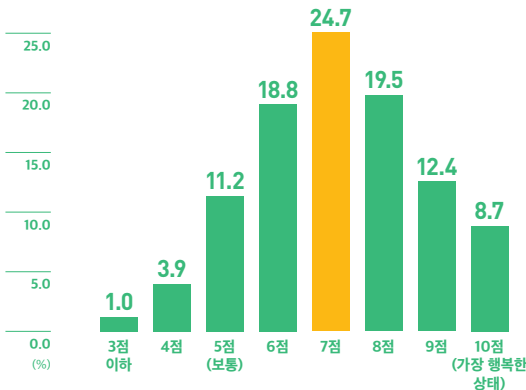
2015년 서울 시민의 행복점수

# 7.13

점



## 행복 지수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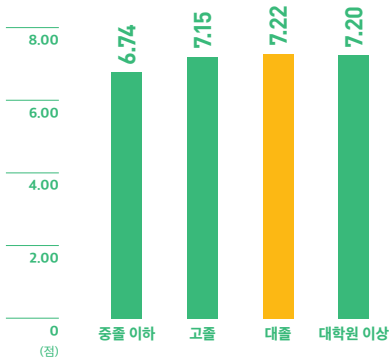
**2015년 질문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행복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상태는 0점, 가장 행복한 상태는 10점 입니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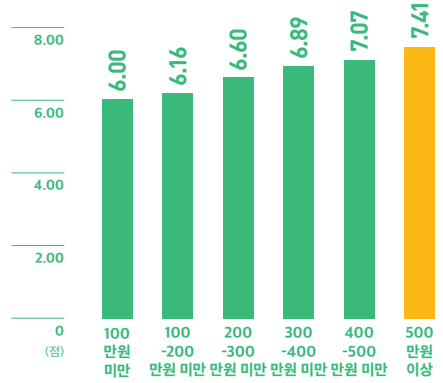
## 학력과 소득별 평균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주: 10점 만점



## 연령별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10대



주: 10점 만점

20대

7.23점

30대

7.21점

40대

7.15점

50대

7.17점

60대 이상

6.90점

## 결혼상태에 따른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기혼



주: 10점 만점

미혼

7.21점

이혼/별거

6.91점

사별

6.81점



#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강북구  
중랑구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상에 생기를 주고 성취 욕구와 에너지를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일의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장애를 야기한다.

서울시민 10명중 5-6명인 53.9%가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체감하였고,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중 47.5%(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25.6%에 해당)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 중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소득 별로는 100-200만원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마포구와 광진구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고, 서초구와 동작구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2015년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체감

53.9%



2015년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체감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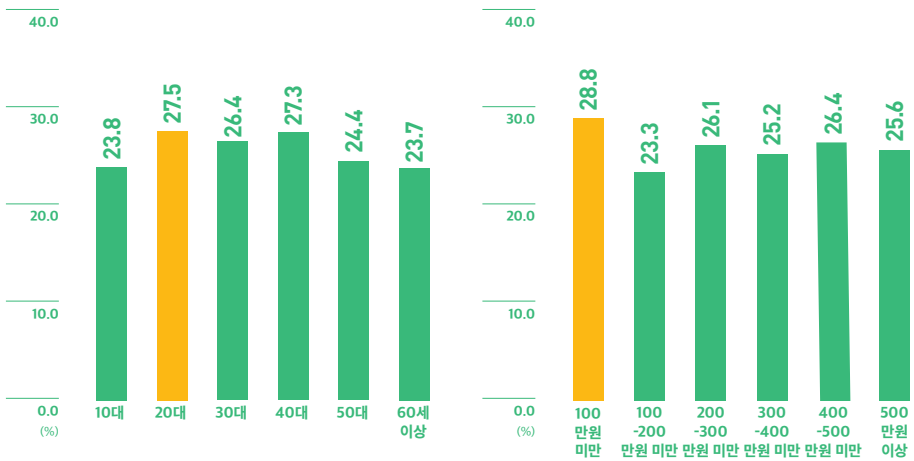
##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연령별/소득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 사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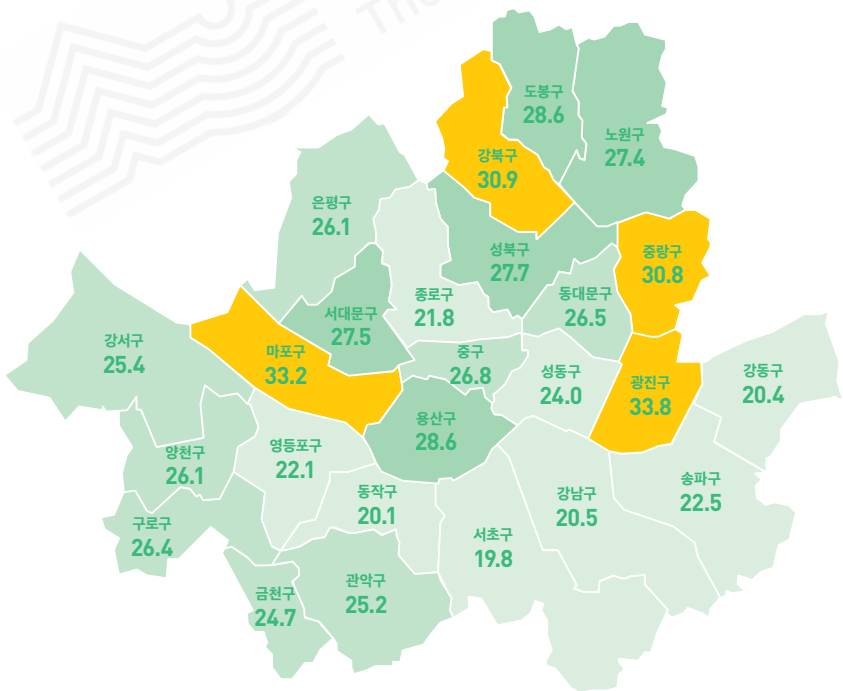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구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 사람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400만원 이상



20대

2015년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평균 7.18점(10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강서구, 구로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7.62점, 7.56점, 7.42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강동구, 중구, 용산구가 각각 6.85점, 6.88점, 6.9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건강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이 7.26점으로 가장 높은 건강 만족도를 나타냈다(400-500만원 7.26점, 500만원 이상 7.23점). 한편 1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건강만족도는 6.6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00-200만원 소득계층은 6.75점, 200-300만원 7.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의 건강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만족도는 6.55점, 50대는 6.87점으로 7점 이하의 건강만족도를 나타냈으며, 40대 7.30점, 30대 7.42점, 20대 7.72점, 10대 7.7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건강 만족도 평균점

7.1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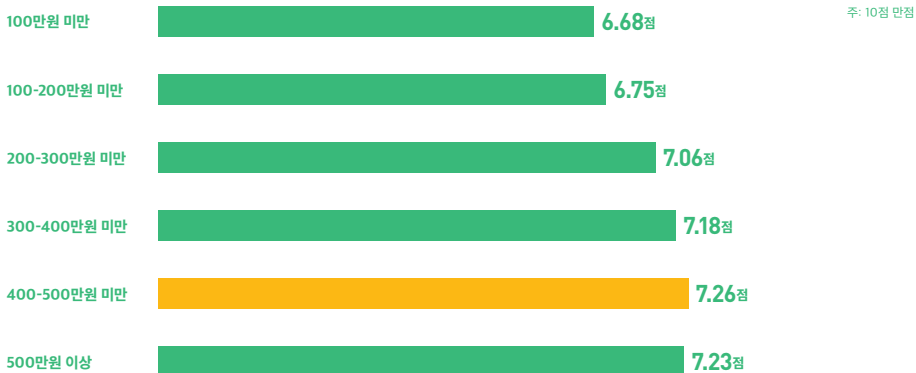
2015년 평균 건강 만족도 최고점 지역 : 동작구

7.62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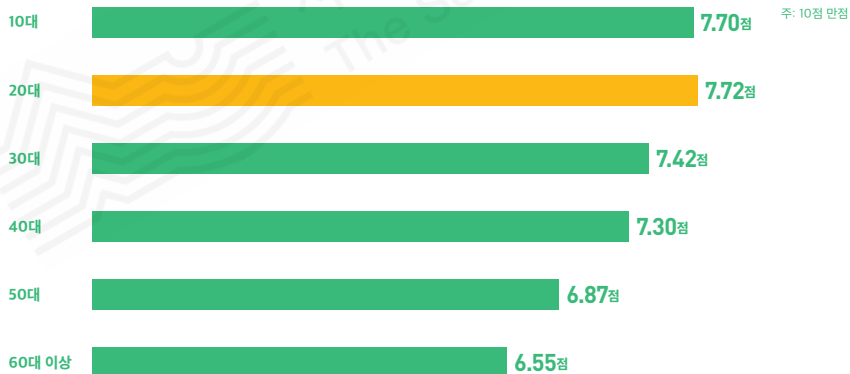
## 소득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연령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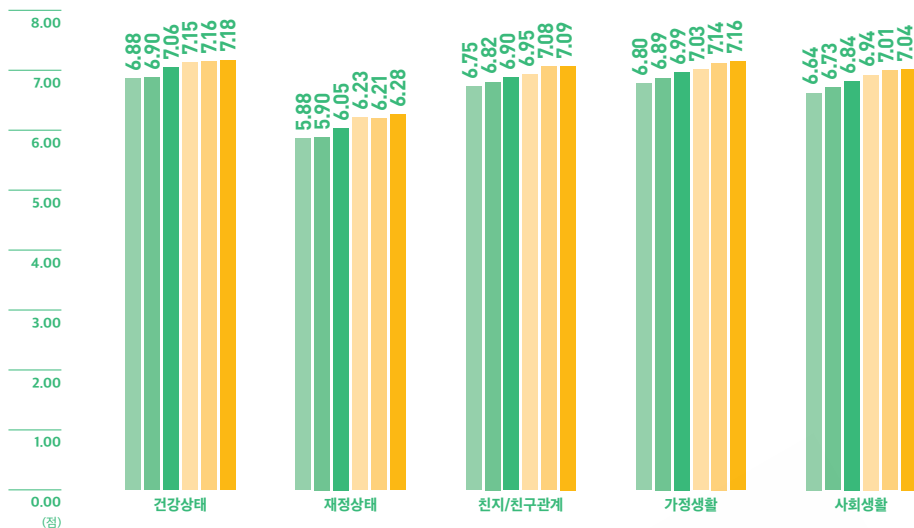


## 부문별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 2010년      ■ 2013년  
■ 2011년      ■ 2014년  
■ 2012년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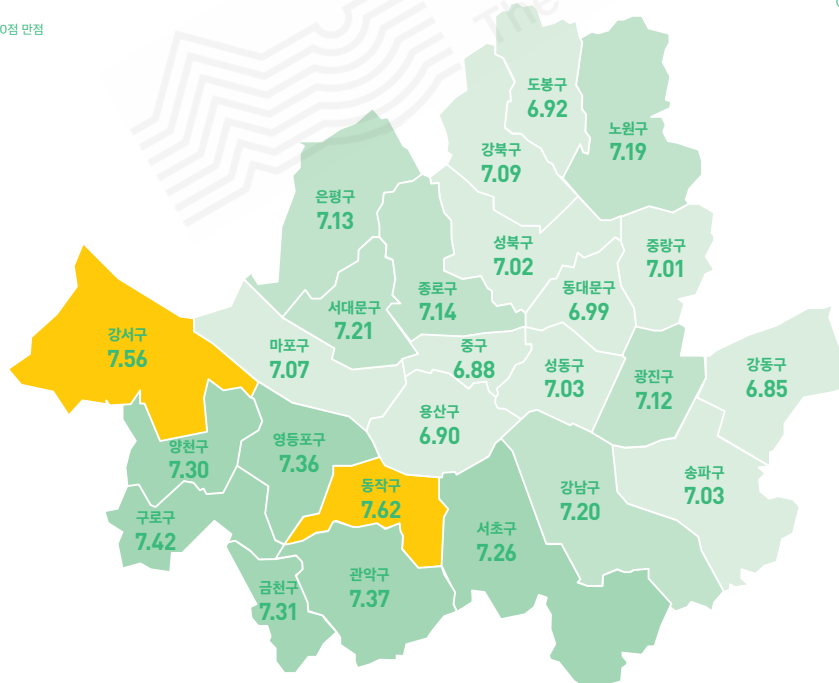


## 구별 평균 건강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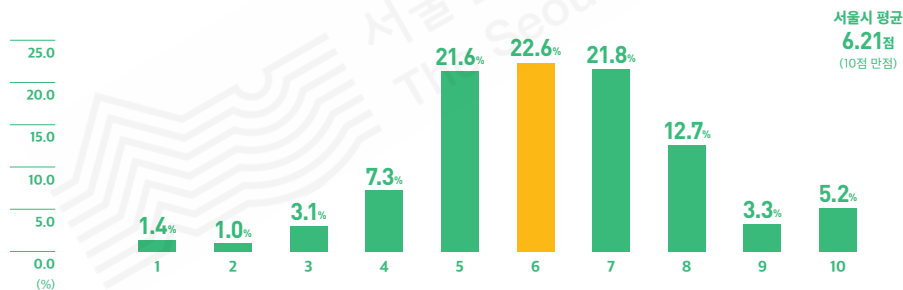
6.21점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경제사회적지위 평균은 6.21점(최하층 1점-최상층 10점 분포)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중간정도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6점 정도의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6%로 가장 많으며 5점(21.6%), 7점(21.8%)에 속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에 비해 자신이 성장할 당시의 경제사회적 지위 평균점수는 5.87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지위상승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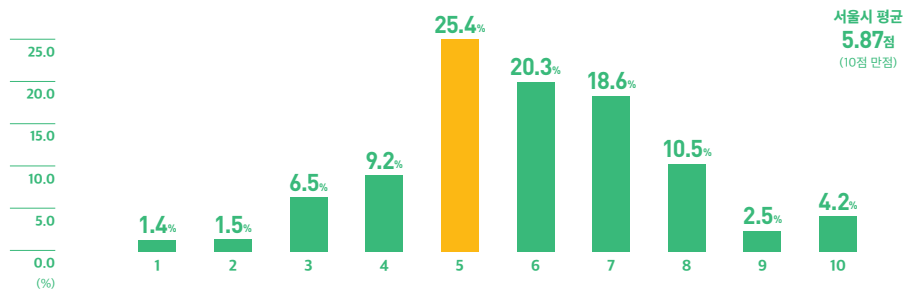
##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성장 당시(15세 전후)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을 낙관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지난 5년간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3-4명 정도인 30-35%로 나타난 반면, 그러한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5-7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학력 계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대문구, 도봉구, 광진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점수가 각각 4.76점, 4.79점, 4.8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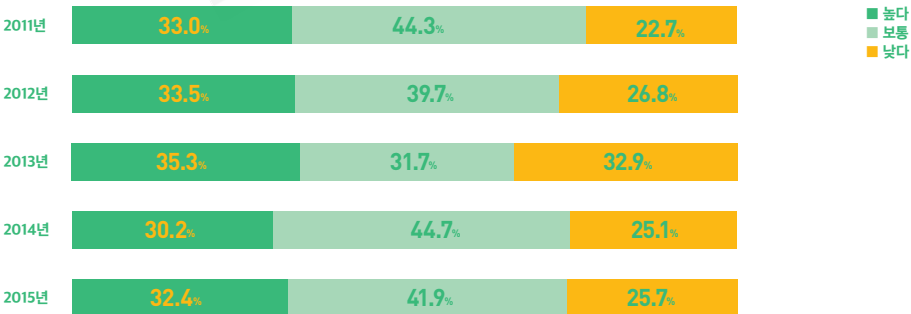
5.15 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학력별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구분	높다	보통	낮다
중학교 이하	31.8%	42.1%	26.1%
고졸	32.0%	42.0%	26.0%
대졸	32.9%	41.9%	25.3%
대학원 이상	33.8%	40.8%	25.5%

## 소득별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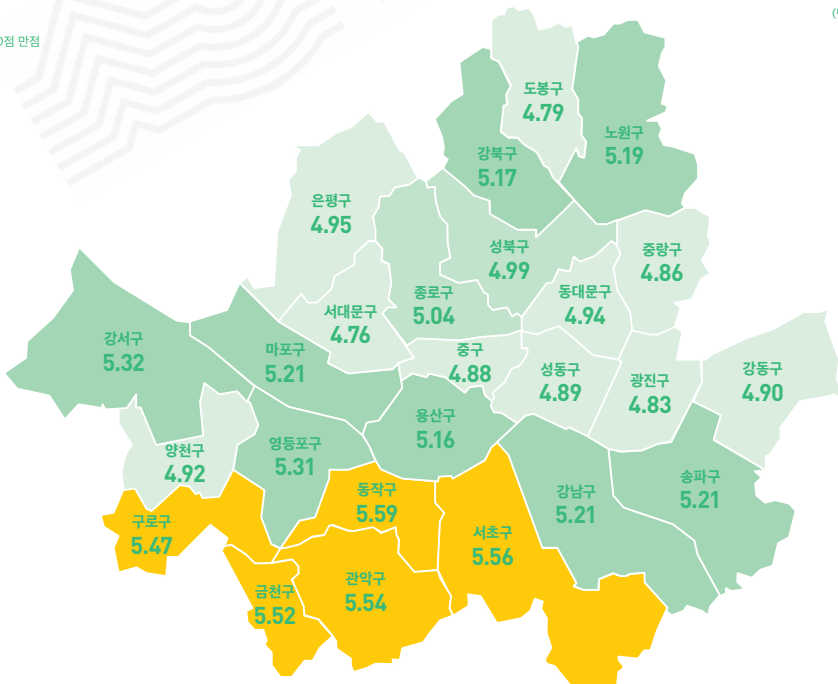
연간 소득 구간	높다	보통	낮다
100만원 미만	31.1%	39.9%	29.0%
100~200만원 미만	29.0%	43.4%	27.6%
200~300만원 미만	29.3%	43.6%	27.0%
300~400만원 미만	30.9%	42.3%	26.7%
400~500만원 미만	33.7%	40.8%	25.5%
500만원 이상	33.2%	41.8%	25.0%

## 구별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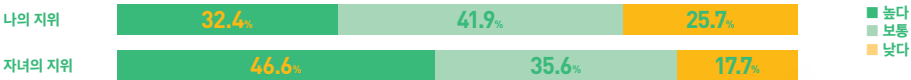


## 자녀의 계층이동가능성

2015년 우리는 ‘나의 지위의 계층이동 가능성 정도’와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정도’를 분리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나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높다’라는 응답 비율은 32.4%에 그쳤지만, ‘자녀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46.6%가 ‘높다’라고 응답해 자녀세대에 희망을 거는 서울시민의 인식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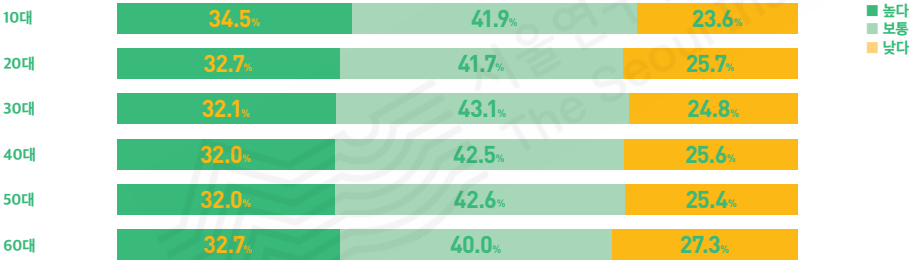
## 계층이동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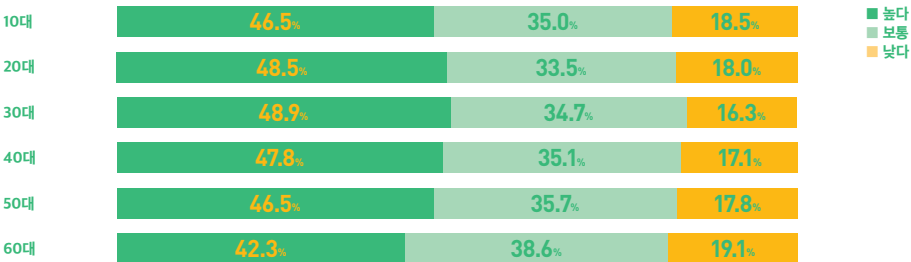
## 연령별 계층이동가능성(본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연령별 계층이동가능성(자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2015년 질문 : 2015년 질문 :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이전 질문 :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3-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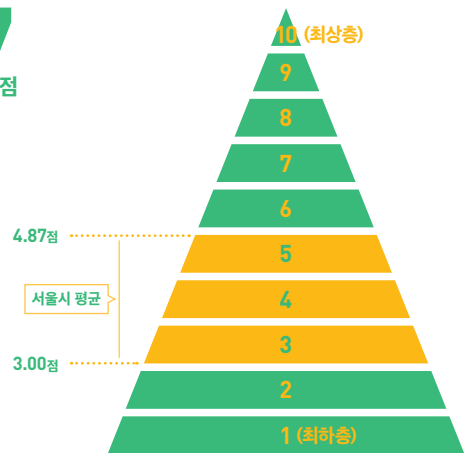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서민'은 누구일까? 서울시민들에게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부터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를 질문한 결과, 10분위 중(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부여했음) 3분위(3.00점)부터 5분위(4.87점)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서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민범주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서민 범주는 3.01-4.87점으로 나타났으며, 밀레니엄 세대가 인식하는 서민범주는 3.04-4.88점 사이에 속하는 집단으로 생각했다.

밀레니엄 세대

## 3.04-4.88 점

베이비붐 세대

## 3.01-4.87 점



2015년 질문: 우리 사회에 서민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 그림에서 몇단계부터 몇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작점) → (끝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시서베이



**Citizenship  
in Seoul**

# IV



- \_\_\_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 \_\_\_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 \_\_\_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 \_\_\_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 \_\_\_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_\_\_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 \_\_\_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 \_\_\_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현주소는?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56** 회

 **3.01** 회

 **2.85** 회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2.3%로, 5년 전인 2010년 24.6%에 비해 12.3% 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송파구, 성동구가 각각 18.2%, 16.5%, 15.8%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반면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의 참여 비율은 각각 6.3%, 8.3%, 8.9%로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로는 복지시설, 병원 등 소외계층 관련 봉사활동이 연평균 3.5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교육 관련 봉사활동이 연평균 3.13회, 문화 교육, 재능 기부와 같은 문화 예술 봉사 활동이 연평균 3.01회, 그리고 청소 및 쓰레기 줍기와 같은 환경보전봉사활동이 연평균 2.85회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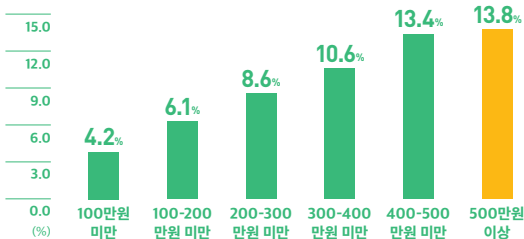
10대 자원봉사 참여율

**33.0** %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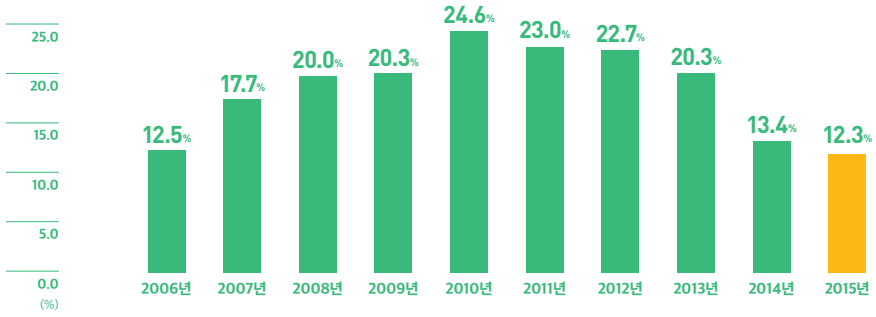
활동분야별 연평균 참여 횟수

	환경 보전 관련	자녀 교육 관련	기타 소외 계층 관련	문화 예술 관련	기타
2012년	2.61	3.39	3.39	-	2.78
2013년	2.68	4.50	3.44	-	2.60
2014년	2.94	3.89	4.33	3.90	-
2015년	2.85	3.13	3.56	3.01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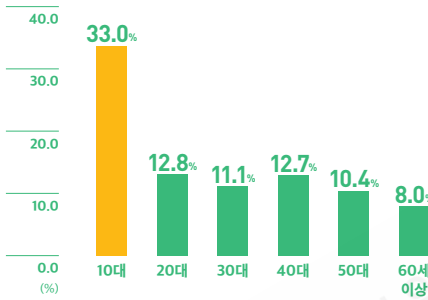
##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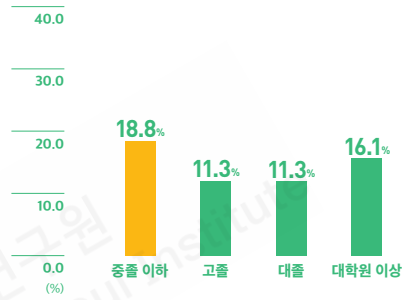
##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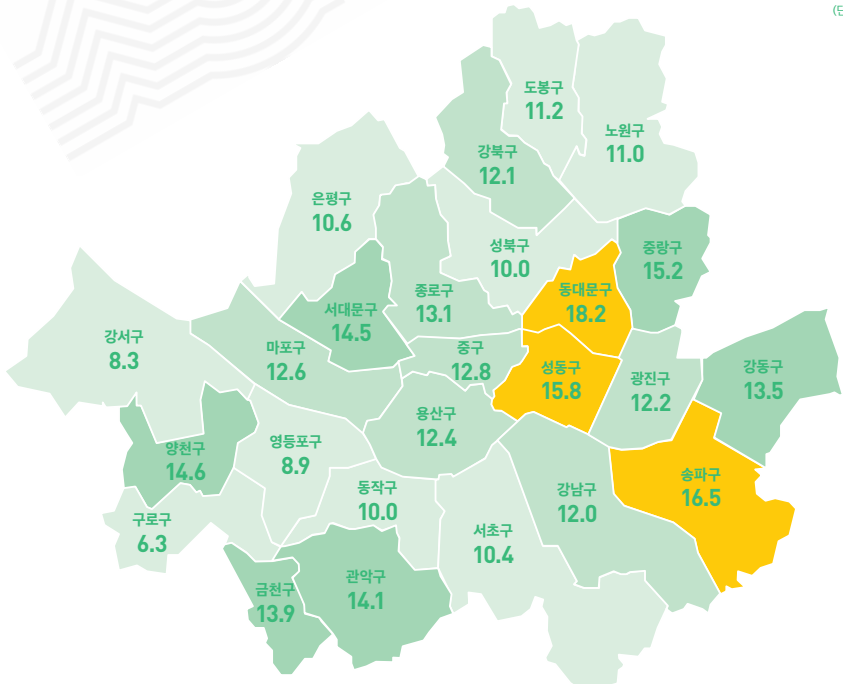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 구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동대문구  
강남구  
성동구

2015년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41.7%로, 2014년에 비해 5.2% 포인트 감소하였다.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4.2%, 50대가 44.4%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구로구, 강서구, 도봉구의 참여자 비율이 각각 28.9%, 31.1%, 33.3%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동대문구, 강남구, 성동구의 비율은 각각 55.2%, 54.6%,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 형태를 살펴보면 ARS 또는 현금 직접 납부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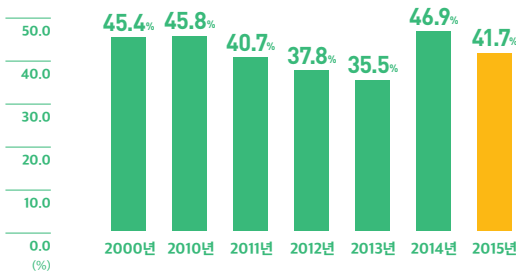


동대문구 기부 참여율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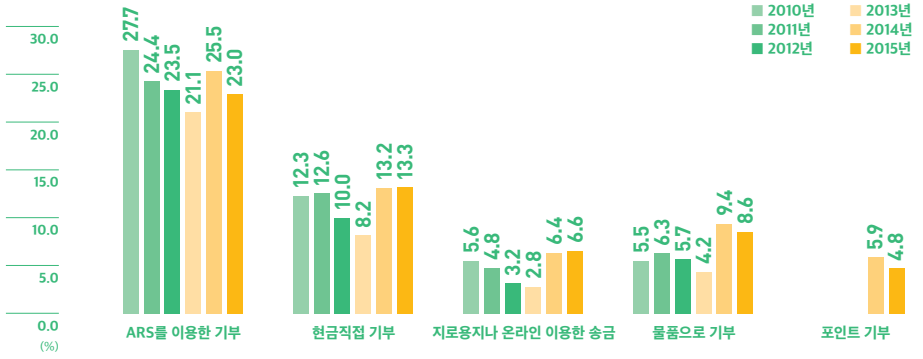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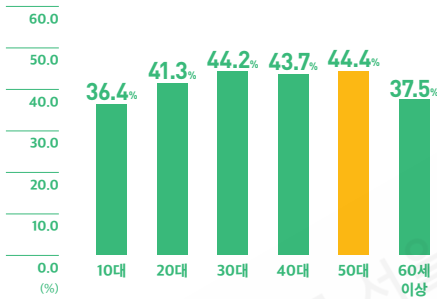


## 연도별 기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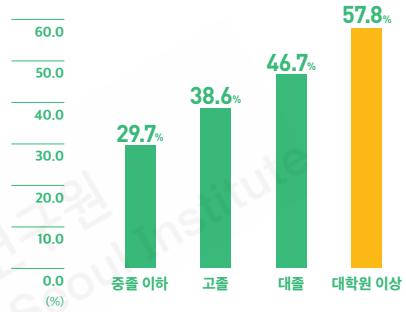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연령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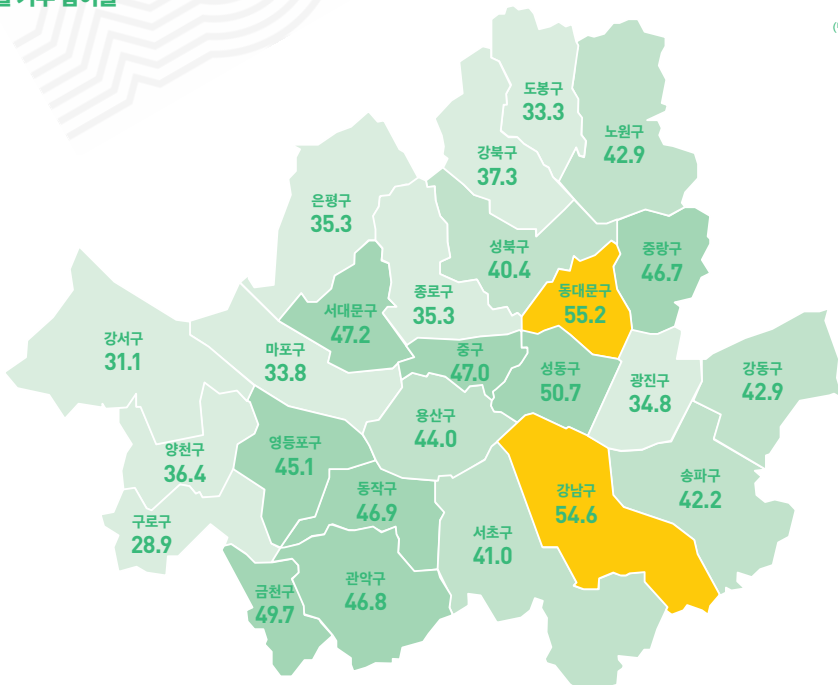
## 학력별 기부 참여율



## 구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장애인과의 스스럼없는 교류, 즉 어울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는 2015년 6.09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0.05점 감소한 결과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의 평균 점수가 각각 5.74점, 5.84점, 5.85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가 각각 6.38점, 6.34점, 6.33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

6.09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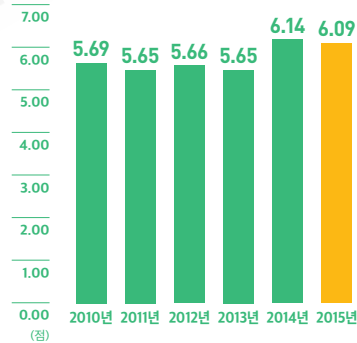
2015년 가장 적극적인 장애아 태도 지역 : 강북구

6.38 점



‘내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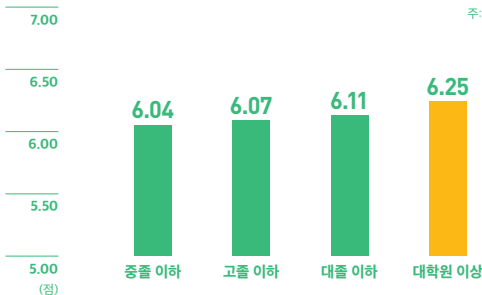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학력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점수

주: 10점 만점



연령별, 소득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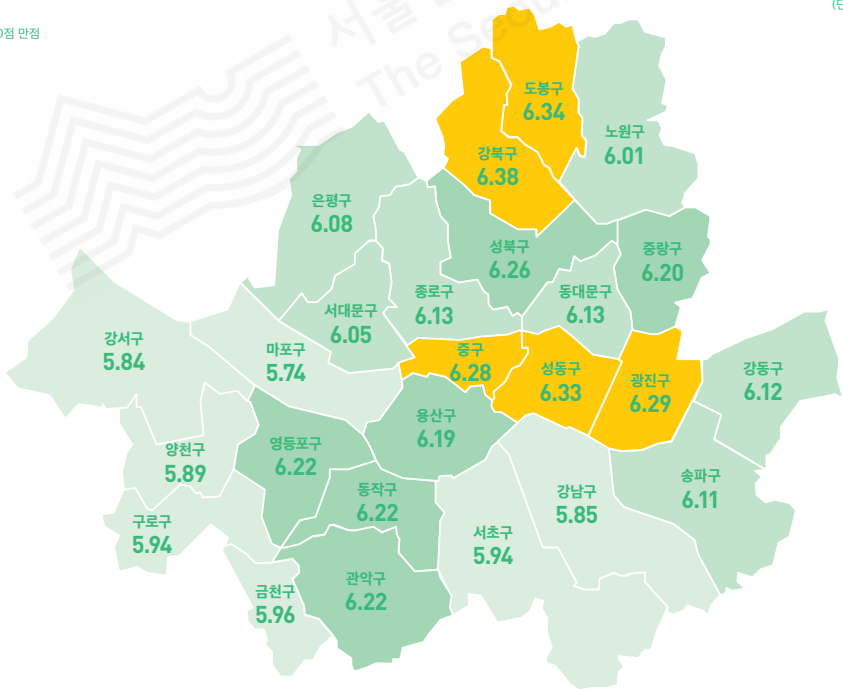


구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

서울의 고령 인구는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의 가중은 미래 서울의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려는 서울시민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 사에 대한 동의정도는 5.08점(10점만점)으로 ‘보통’정도의 동의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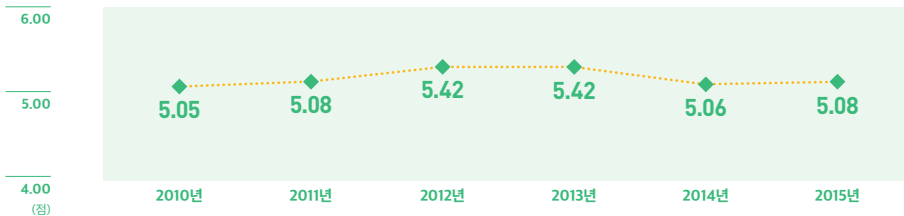
연령이 낮을수록 증세 부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었는데 특히 2-30대의 증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력은 높을수록 증세 부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었는데 특히 대학원 이상의 증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의 평균 점수가 각각 4.87점, 4.87점, 4.94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반면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의 평균 점수는 각각 5.32점, 5.28점, 5.24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2015년 증세 부담 의향 평균점

## 5.08 점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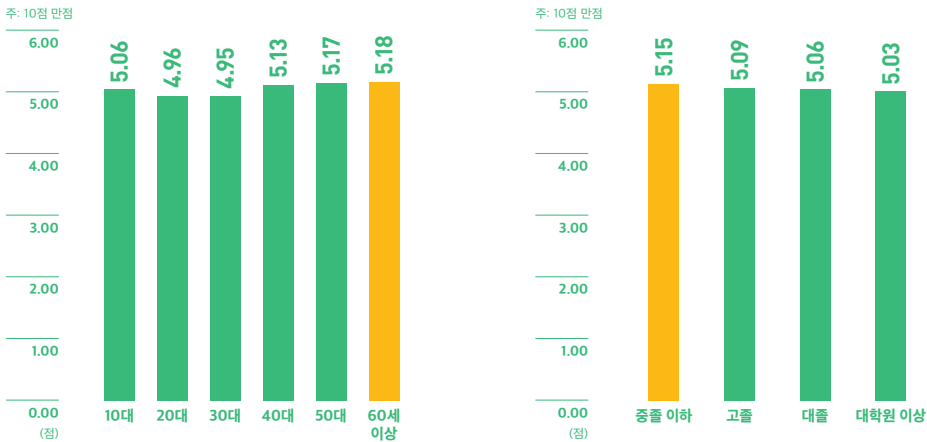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령별, 학력별 고령자를 위한 중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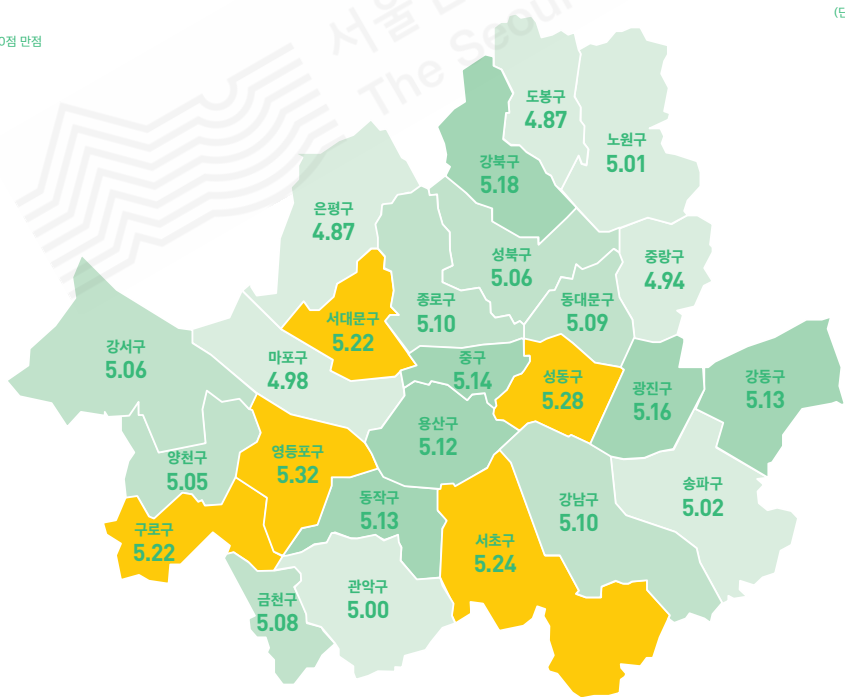


구별 고령자를 위한 중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남성 참여율과의 차이도 2000년 25.8%포인트에서 2015년 19.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 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은 6.27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2015년 5.95점까지 낮아졌다.

지역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의 평균 지지도가 각각 5.58점, 5.74점, 5.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각각 6.20점, 6.17점, 6.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여성 참여 제도 개선 지지도

5.95 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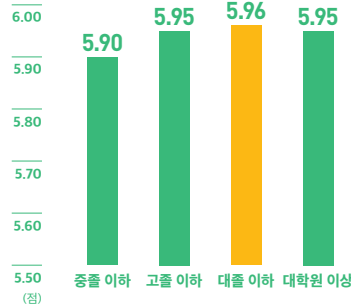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학력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령별, 소득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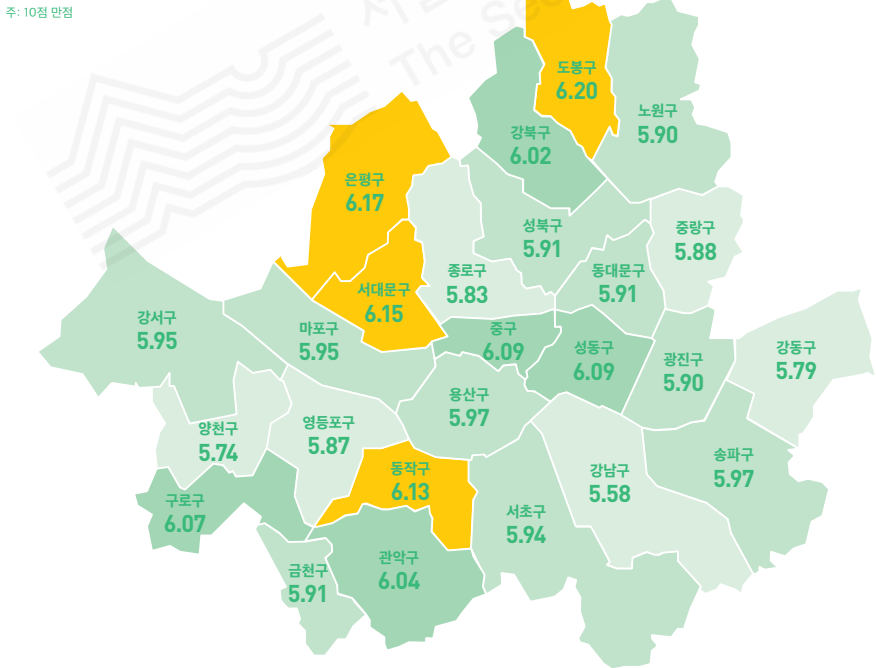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구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39.6%**

신뢰는 배려, 공존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조건이다. 신뢰의 대상이 유독 가족으로 편중되는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 공공 전반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신뢰의 확충은 사회 통합의 전제 조건이자 통합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2015년 서울시민의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51점으로 가족의 8.83점에 비해 3.32점 낮게 나타났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6%에 불과하고 보통과 불신의 비율은 각각 40.9%와 19.4%였다.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강남구, 노원구의 이웃 평균 신뢰도가 각각 5.23점, 5.27점, 5.28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광진구, 중구, 도봉구의 평균은 각각 5.81점, 5.76점, 5.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이웃에 대한 평균 신뢰도

**5.51**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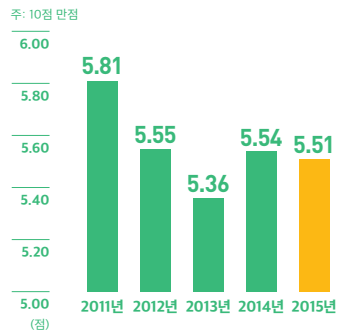
2015년 이웃 신뢰 응답자

**39.6%**

2015년 이웃 불신 응답자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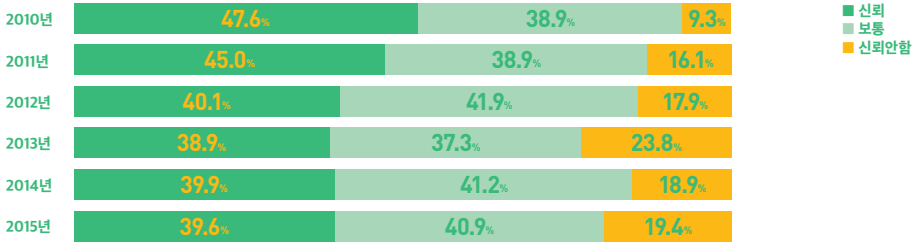
연도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연도별 이웃 신뢰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연령별, 학력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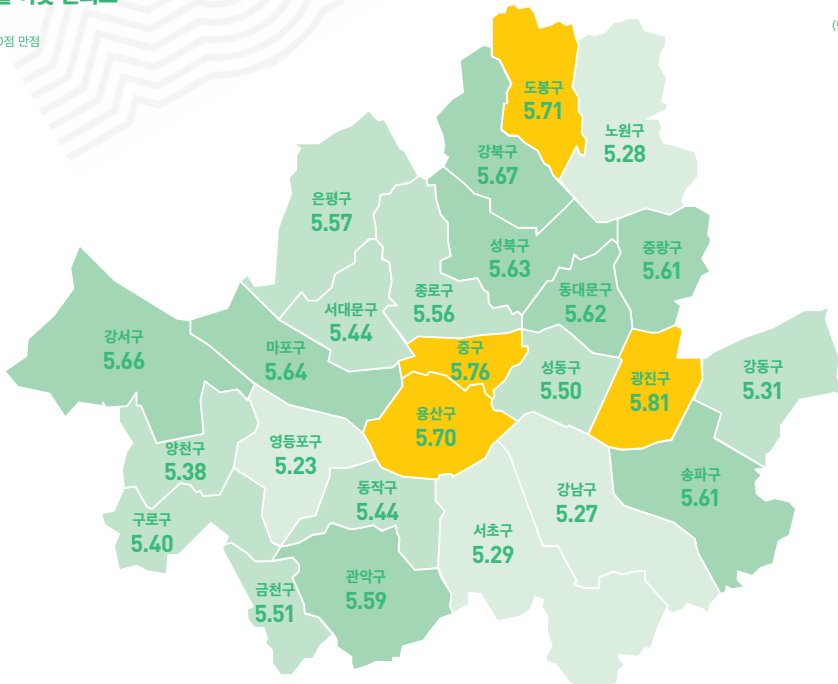


## 구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2015년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05점으로 가족의 8.83점에 비해 3.78점, 이웃의 5.51점에 비해 0.46점 더 떨어진다.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2.2%, 불신과 보통이 각각 28.9%, 38.9%로 나타났다.

연령별 추이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신뢰도가 떨어지다 40대부터 반등하여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를 정점으로 대졸 이하까지 신뢰도가 하락하다 대학원 이상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 동작구, 중구, 서초구의 평균이 각각 4.73점, 4.75점, 4.77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의 평균은 각각 5.52점, 5.51점, 5.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5.05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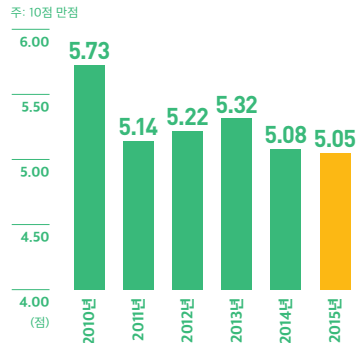


2015년 공공기관 신뢰도 최고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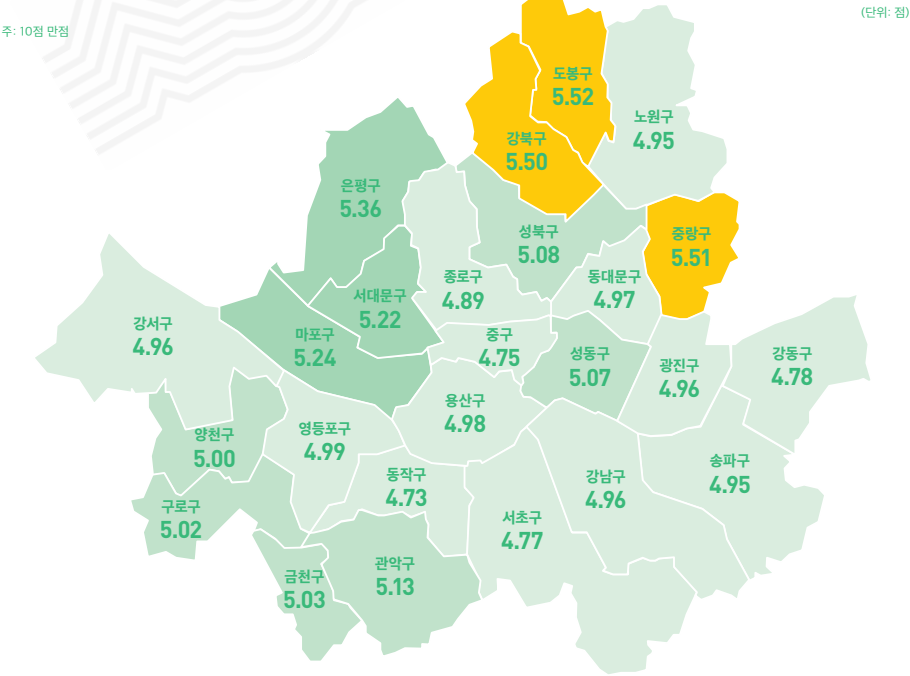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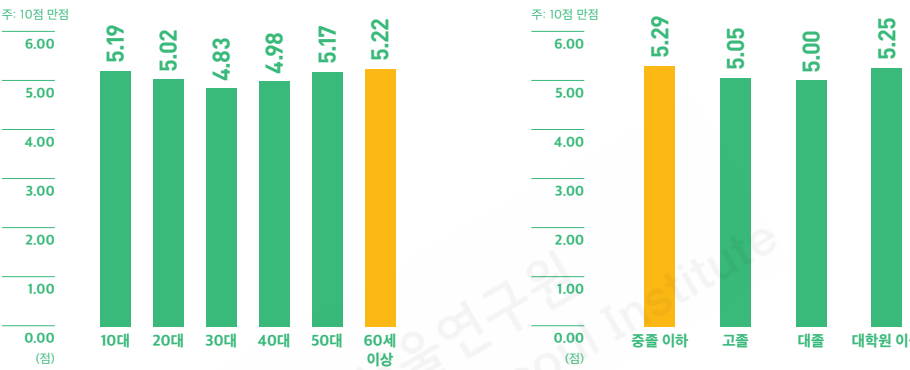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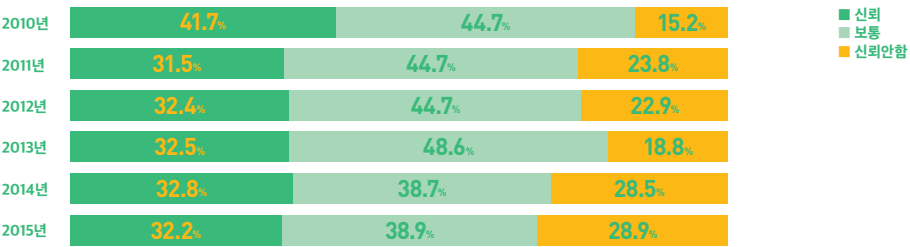
5.52 점

도봉구

연도별 공공기관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현주소는?

 **4.98**점

대학교육의 기회

서울의 청년층(25-34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을 꼽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울의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5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육의 기회가 10점 만점에 최고점인 4.98점이었고, 나머지 평가 영역들, 특히 조세 정책, 취업기회, 수입과 소득 등은 모두 4점 중반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015년 가장 큰 차별 요인

**49.3** %

소득수준



**45.9** %

교육수준



2015년 사회정의(공평성)

**4.98** 점 (가장 높은 영역)

대학교육의 기회

**3.96** 점 (가장 낮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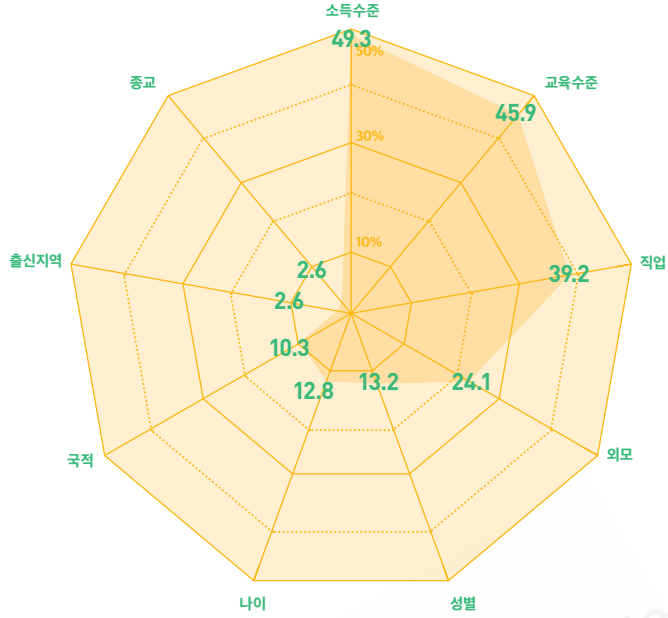
소수자의 권리

## 사회적 차별요인(청년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

주: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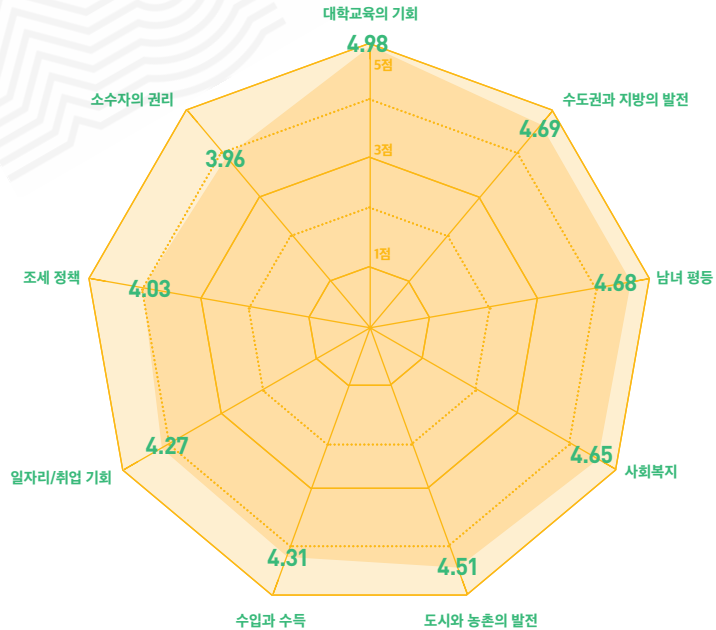


## 사회정의(공평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5 서울서베이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 서버이란?



**Seoul Survey**





#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도시정책지표 체계이다. 지표의 자료 구축을 위해 행정자료 및 대규모 가구조사, 외국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영향 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 상과 정책 분야별 아젠더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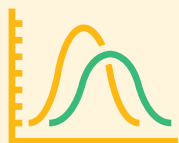
## 구성

- 12개 분야, 41개 영역, 208개 지표로 구성
- 지표의 데이터는 매년 4만6천명 내외의 서울 시민, 2,500명의 서울거주 외국인,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 역할

- 가구 현황, 주거와 생활, 세대와 계층, 경제, 복지, 교통, 환경, 가치와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



## 활용

- 서울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시기 맞춤형 정책 모색
-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

#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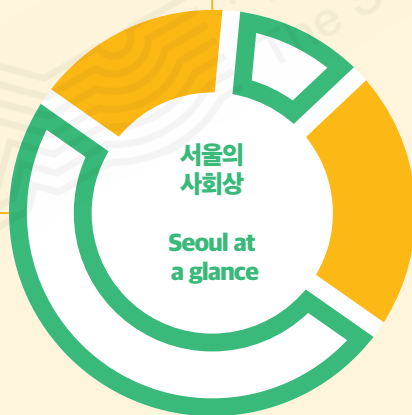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평균인</li> <li>• 서울거주 외국인</li> </ul>	14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반</li> <li>• 기업환경</li> <li>• 인적자원역량</li> <li>• 생활환경</li> </ul>	26
도시발전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li> <li>• 생활환경</li> <li>• 교육환경</li> <li>• 재정수준</li> </ul>	21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문화활동</li> <li>• 시민문화진흥</li> <li>• 문화기반환경</li> <li>• 문화시장환경</li> </ul>	23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li> <li>• 관광산업</li> <li>• 관광서비스</li> <li>• 여가관광 환경</li> </ul>	10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보호</li> <li>• 건강한 삶</li> <li>• 노후생활</li> </ul>	20
여성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성</li> <li>• 건강한 가정</li> <li>• 보육환경</li> </ul>	14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li> <li>• 수환경</li> <li>• 자연환경</li> <li>• 폐기물</li> <li>• 환경거버넌스</li> </ul>	19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인프라</li> <li>• 교통서비스</li> <li>• 환경친화적 교통</li> </ul>	21
정보와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행정</li> <li>• 정보활용과 소비</li> </ul>	6
안전과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li> <li>• 생활안전</li> <li>• 교통안전</li> <li>• 재난대응</li> </ul>	17
가치와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소비</li> <li>• 가족규범</li> <li>• 시민의식</li> </ul>	17



#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 ● 서울시민조사

조사대상 서울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크기 20,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  
(2015년 46,837명)  
조사기간 매년 10월 한달  
조사방법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조사대상 국내 90일 초과  
체류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 거주 외국인  
표본크기 2,500명  
조사기간 매년 10월 한달  
조사방법 거점 조사

\* 2007년부터 조사 실시  
\* 2009년 표본크기 증가 (1,000명 → 2,500명)

# 서울서베이의 활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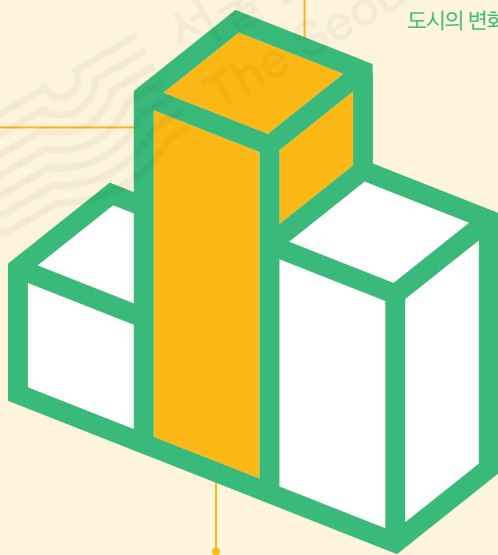
## 정책분석을 위한 종합통계로 과학적인 시정운영에 기여

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 검증

2

## 서울의 현황과 시민 삶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도시의 변화와 삶의 질, 가치, 의식 등을  
시계열로 분석



3

## 시정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신뢰 제고

통계 웹진, 원자료,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만든사람들

### 서울시 ———

최영훈 (정보기획관)

안정준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황선아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데이터분석팀장)

원유복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데이터분석팀)

### 서울연구원 ———

변미리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박민진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김진아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최윤석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 Seoul at a Glance 2016

한 눈에  
보는 서울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편집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발행일	2016년 12월
디자인	霖design   ddirimi@naver.com
인쇄·제본	현문인쇄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ISBN	979-11-5621-687-2 03310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